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을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강 은 실

2011년 8월

#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권 인 혁

강 은 실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8월

강은실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년 8월

## 목 차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제2장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기능과 운영사례 .....	4
1.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기능 .....	4
2.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례 .....	7
1) 경기도박물관 교육프로그램 .....	7
2)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교육프로그램 .....	16
제3장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	21
1. 민속자연사박물관 일반현황 .....	21
2.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과 만족도 .....	23
제4장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	34
1. 설문 대상 및 구성 .....	34
2. 교육프로그램 인지도 .....	37
3. 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 .....	43
4.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56
제5장 맺음말 .....	65
참고문헌 .....	69
Abstract .....	73
<부록> 설문지	

## 표 목차

<표 1> 경기도박물관 일반현황 .....	8
<표 2> 초·중등 교원 문화연수 세부내용 .....	14
<표 3> 박물관 토요강좌 일정 및 내용 .....	14
<표 4>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일반현황 .....	17
<표 5> 박물관 교실 교육 제목 .....	18
<표 6> 관리주체별 제주지역 박물관 현황 .....	21
<표 7> 민속자연사박물관 일반현황 .....	22
<표 8>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	24
<표 9> 자연생태교실 교육내용 .....	25
<표 10> 신나는 과학교실 운영내용 .....	26
<표 11> 박물관 탐방교실 운영내용 .....	28
<표 12> 갈옷만들기 운영내용 .....	29
<표 13> 학예사와의 만남 강좌내용 .....	30
<표 14> 전통문화 강좌 명 .....	31
<표 15>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	32
<표 16> 응답자 특성 .....	35
<표 17> 설문 구성 내용 .....	36
<표 18> 교육프로그램 인지 여부 .....	38
<표 19> 2010년도 교육프로그램 참여 횟수 여부 .....	40
<표 20> 교육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	42
<표 21>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	43
<표 22> 2010년도 교육프로그램의 민속자연사박물관 특성 반영 여부 .....	45
<표 23> 2010년도 교육프로그램의 제주지역사회 요구 반영 여부 .....	46
<표 24> 2010년도 교육프로그램의 관광객 욕구수요 반영 여부 .....	48
<표 25> 2010년도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기간 적절성 여부 .....	49
<표 26> 2010년도 교육프로그램의 제주지역 문화정체성 확립 기여 여부 .....	51

<표 27> 2010년도 교육프로그램의 수강생 사회교육 목표 성취 기여 여부	52
<표 28>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별 중요도	56
<표 29>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확대 방안	59
<표 30>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교육대상	59
<표 31>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연계·협력이 필요한 기관	60
<표 32> 교육프로그램 홍보강화 매체 순위	62

## 그림 목차

<그림 1> 경기도박물관 조직도 .....	8
<그림 2>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조직도.....	17
<그림 3> 민속자연사박물관 조직도.....	22
<그림 4> 교육프로그램 인지 경로.....	39
<그림 5> 교육프로그램 홍보활동 인식 여부.....	39
<그림 6> 2010년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수 적정 여부.....	44
<그림 7>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 여부.....	53
<그림 8> 교육프로그램의 체험 중심 운영 여부.....	54
<그림 9> 교육프로그램의 수준별 차별화된 운영 여부.....	54
<그림 10> 교육프로그램의 학교교육 연계성 여부.....	55
<그림 11>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인력 필요 여부.....	57
<그림 12> 확대해야 할 프로그램 분야.....	58
<그림 13> 확대해야 할 프로그램 유형.....	58
<그림 14> 교육프로그램의 예산 적정성 여부.....	61
<그림 15> 교육프로그램의 예산 총예산 대비 증액 정도.....	61
<그림 16> 선거직 공무원의 민속자연사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중요성 인식 여부.....	62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목적

오늘날의 박물관은 일반대중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국민들로 하여금 문화적 수요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여가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하였다. 즉, 여가에 대한 교육적 접근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박물관은 그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역할에 대한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수집,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하는 기본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교육적 기능의 강화이다. 즉, 박물관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적 기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가 보편화되면서 지역의 문화 발전이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박물관을 지역관광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여주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센터로서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그만큼 박물관에서 운영되는 교육프로그램은 지역발전의 중요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의 박물관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여타 지역과는 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문화관광과 잘 연계만 하면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제주는 21세기 비전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세계를 향한 개방정책으로, 여기에는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가 핵심과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기능을 담당할 공립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공립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평가는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지역 특성상 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 온 과거의 운영방식을 답습함으로써 인해 박물관



운영이 관람객 증가에 집중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런 문제인식 아래, 제주지역의 공립박물관을 대표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하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진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제주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문화를 관광자원화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는 제주의 중심 박물관이 되기를 기대한다.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진단하여 각종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다만 분석할 교육프로그램의 자료는 최근 3년간으로 한정하여 접근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기능에 대한 이론 고찰을 선행하였고, 나아가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기도박물관과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경기도박물관과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각각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의해 설립된 공립박물관이다. 박물관은 운영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조직, 예산, 중점 분야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공립 박물관 중에서 사례 대상 박물관을 선정하였다. 경기도박물관은 경기지역의 고유문화 유산을 재조명하여 지역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지역의 역사나 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 내용에서도 역사실, 민속생활실, 고고실 등으로 구성되어 민속자연사박물관과 전시 내용이 유사하고 지역의 자연, 역사와 민속, 문화를 아우르는 종합박물관이다.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직원 현황이나 조직 구성이 민속자연사박물관과 비슷하고 도심 속의 살아

있는 박물관 운영을 위한 다양한 체험 중심의 자연사 분야 전시와 각종의 자연 과학 분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립박물관의 학예사 및 연구분야 근무자, 문화관광해설사, 문화예술재단과 도청 문화정책과, 도의회 문화관광전문위원실 근무자 등 문화관광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sup>1)</sup>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를 통해 자료의 객관성과 발전방안에 대한 실행성을 확보하였다.

---

1) 설문조사 대상은 35쪽 <표 16> 응답자 특성과 같다.

## 제2장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기능과 운영사례

### 1.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기능

오늘날의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의 수집, 보존, 연구, 전시의 기능에서 벗어나 문화와 복지의 향상에 따른 새로운 기대와 욕구가 급증함에 따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 복지시대에 요구되는 교육적 기관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박물관은 학생 및 일반 시민들, 전문가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시 전달 및 해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관람객 서비스를 확대하여 평생교육 및 문화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sup>2)</sup> 특히 수도권에 비해 문화와 교육 시설이 빈약한 지방의 박물관은 지역의 중요한 문화시설 인프라로서 지역 주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박물관의 교육적 의미는 박물관의 운영목적과 관련이 있으며, 학교 교육의 대안적 형태로 이해되고 있기도 하다. 박물관 설립·운영자들은 어떤 메시지를 관람자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하며, 이는 거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전시들을 통해서 실천되며, 전시와 활동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에 이른다. 박물관은 실제표본, 유물, 작품을 눈으로 확인하고 깊이 이해함으로써 그 동안 교실 안에서만 수업해야 했던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up>3)</sup>

박물관 교육은 다른 교육기관과는 달리 풍부한 실물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공간으로 이를 활용한 흥미로운 교육을 진행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박물관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특성이라 할 수 있지만 상설전시를 통한 교육에는 그 한계점이 있다. 이는 다양한 관람객에 맞춘 수준별 전시가 어렵고, 전시공간이 한정적이며 전시물의 교체가 간단하게 이루어 질 수 없어 10~20년 이상 동일한 전시가 이루어져 다양하고 풍부한 소장 자료를 백퍼센트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윤혜영, 「자연과학계 박물관 전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5쪽.

3) 국성하, 『우리 박물관의 역사와 교육』, 서울, 혜안, 2009. 26~27쪽.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경우를 보더라도 1984년 개관 이후 2002~2004년 자연사 전시실과 제2민속전시실 교체공사가 이루어지고, 2007년 세계자연유산 홍보전시관과 해양전시관이 재건축이 되었을 뿐이며 박물관 전체 전시자료는 소장자료의 24.7%에 그치고 있다.

전시내용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일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은 다양한 계층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로 흥미로움과 이해를 높일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은 전시내용이 장기간 교체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완하여 관람객의 만족도와 이용도를 높일 수 있다. 곧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는 박물관 자체의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박물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1) 문화욕구 충족 기능

우리나라는 그 동안 많은 개발도상국가의 문화정책이 그러하듯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 문화수요 문제가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최근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문화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문화예술 창작 기반 조성과 문화 향수 기회 확대의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sup>4)</sup>

20세기에는 경제 강대국이 세계의 중심에 있었다면 21세기에는 문화 강국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다. 국민들 역시 경제적 여유 보다는 문화적 욕구 충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분야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박물관이 문화유산을 수집·보존·전시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장소에서 탈피하여 휴식공간과 문화적 공간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강화하고 있는 이유도 그러 할 것이다.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에는 전시와 관련된 프로그램 이외에 예술 공연, 음악회, 영화 상영, 패션쇼 등 일반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각종 다양한 문화 행사 프로그램이 있다. 수도권에 비해 문화·예술 공간과 접근성이 빈약한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박물관의 문화행사는 지역주민에게 특별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박물관 홍보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2010년도에 제주도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4) 전혜정, 「박물관 유형에 따른 우리나라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실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34쪽.

위해 돌문화공원에서 마련한 <피아니스트 서혜경 연주회>와 제주도립미술관에  
서 개최된 <배따라기 양현경과 함께하는 도립미술관 가을콘서트>, <개관 1주년  
기념 음악회> 등은 제주도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돌문화공원  
과 제주도립미술관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 2) 여가 선용 기능

현대에 들어 사회문화적인 환경 변화로 교양과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가활동의 하나로 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는데 이런 현상은 박물관이 현대인들에게 여가를 선용하고, 삶의 질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 증거이다. 여가활동으로서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그것들과 친숙해지려는 여가 선용의 삶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박물관 관람은 자기성장과 자기개발을 위한 여가활동이라  
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박물관이 여가를 보내는 개념에서 발전하여 교  
육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역할을 주문하는 것  
이다. 특히 성인에 비해 여가 선용의 기회나 장소가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박물관  
은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제공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일회성이 아닌 일정한 기간  
을 정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문화 교실>, <박물관 학교>,  
<공예 교실>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개인적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  
으로 참여하여 건전하게 여가를 보내고 체계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박물관은 시시각각 변하는 참여자들의 여가 선용 기호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사회 변화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로 자기개발을 위한 건전한 여가 활동  
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 3) 자기 개발 기능

자기 개발(self-development)이란 단순히 지식이나 재능 따위를 발전시키는 것  
을 넘어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은 일반시민에게 개



인적 관심분야에 대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과 자극의 기회를 통해 발전과 자아실현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작용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은 일반시민에게 자기 개발의 장소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자발적인 참여자로 동기화가 잘 되어 있어 교육프로그램을 잘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자기개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박물관이 일반시민들에게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인류와 사회에 대해 봉사하는 것이다. 박물관은 사회와 끊임없이 교류하며 사회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오늘날 박물관은 사회의 요구를 발전적인 방향에서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은 그 다양한 활동 중의 하나이다.<sup>5)</sup>

현대인들의 지식적 충족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을 통한 자기 개발의 의지는 전문가 이상의 열정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전문 지식 습득을 통한 다방면의 사회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문화관광해설사, 과학해설사, 미술관 도슨트(Docent) 등 여러 방면에서 일정한 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 해설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즉 자기개발을 위한 전문적 지식 습득이 결국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박물관이 지역사회의 공공시설로서 지역 주민을 위해 하여야 할 주된 역할이며 전문 학예인력과 박물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2.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례

### 1) 경기도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sup>6)</sup>

경기도박물관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문화의 육성에 힘입어 1996년 6월 21일에 개관한 이후 2008년 3월 1일부터 경기문화재단 소속으로 변경 운영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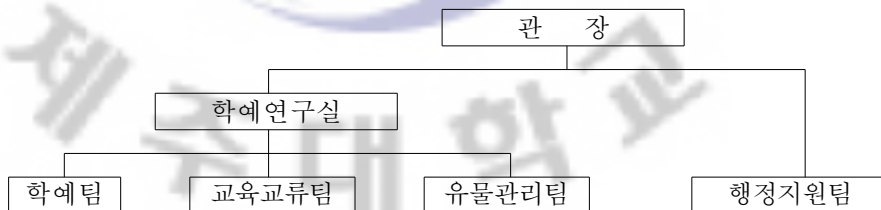
5) 김의진, 「지역박물관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충북지역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1쪽.

6)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박물관 연보 2009』 제13호, 2010.

있다. 일반 현황은 <표 1>과 같으며 2008년 3월부터 무료 관람을 실시하고 있다.

조직은 <그림 1>과 같이 1실 4팀으로 구성·운영되며, 행정지원팀은 박물관의 전체적인 행정과 회계를 담당한다. 학예팀은 학술조사·연구, 상설·특별전시를 담당하며, 교육교류팀은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박물관 활동의 홍보, 학술교류 등을, 유물관리팀은 수장고 및 보존과학실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민속자연사 박물관이 분야별 2개의 과(고고민속과, 자연사과)로 나뉘어 각각의 학예분야 연구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유물관리를 담당하는 것과는 달리 학예연구실이 운영 분야별로 세분화 되어 각 팀별 전문화된 운영을 하고 있다. 특히 교육프로그램 전담부서를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전문성을 기하고 있다.

<그림 1> 경기도박물관 조직도



<표 1> 경기도박물관 일반현황

(2010년말 현재)

2010년 예산 (천원)	관람객(명)	직원(명)			소장자료(점)
		문화행정직	학예연구직	계약직	
6,060,000	445,889	5	12	7	16,435

\* 자료 출처 : 경기도박물관 내부자료

상설전시실은 역사실, 고고실, 미술실, 문헌자료실, 민속생활실, 서화실, 기증유물실 등 7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역사실은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영상 스크린을 이용해 경기도의 유래와 역사, 대표적 문화유적과 민속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고실은 구석기 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의 유물 200점이 전시되어 있어 다양한 고고유물을 통해 경기도 역사의 흐름을 읽



을 수 있다. 미술실은 경기도의 역사 문화에 대한 주요한 구성요소인 도자와 불교를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고, 문헌자료실은 임금에게 올렸던 문서에서부터 일반 백성들이 주고 받던 문서, 편지 등의 문헌 자료를 전시하였다. 민속생활실은 하루(의식주), 일년(세시풍속), 일생(일생의례), 민속예술 주제에 맞춰 민속생활의 내용과 특성을 조명하고 있다. 서화실은 산수화, 기록화, 영모·화훼화, 사군자화, 초상화, 민화 등 6개의 장르로 구성되며, 기증유물실은 유물을 기증, 위탁한 종종 또는 개인 소장자의 유물을 소개하고 있다. 총 7개의 전시실로 구성되며 지역의 역사와 민속, 서화 등을 세분화하여 전시함으로써 경기도의 전 분야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

박물관은 경기지역의 고유문화 유산을 조사·발굴·연구하고 이를 재조명하여 경기도 역사의 정체성 구현과 도민의 애향정신을 고취시켜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고, 경기지역의 자연환경을 분석·전시하여 인간과 자연의 친화력을 향상시키며 생태자원의 보존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부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문화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여러 차례의 기획전시와 몽골, 중국, 일본, 체코, 스페인 등 해외박물관과의 특별교류 전시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참여 행사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 발굴하여 학술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문화재의 보존·관리는 물론, 성인들을 위한 박물관 대학, 문화유적 답사, 초, 중등 학생을 위한 어린이 문화학교, 그림그리기 대회, 문화영화상영 등 늘 새롭고 다양한 문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문화의 보존중심에서 탈피하여 문화창조와 문화복지는 물론 다문화가족을 위해 창조성과 전문성을 높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전문적 강좌와 박물관 인턴십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나아가 현장을 강화하여 관람객을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스리랑카 문화의 날 행사’, ‘주한 외국인 우리문화 체험’, ‘내일을 꿈꾸는 어린이 문화체험단’ 프로그램은 해외 이주민과 지역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져 지역문화를 알리고, 지역주민과 해외 이주민과의 통합,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교육을 실천해 박물관은 지역주민의 문화교육 공간임에 동시에 지역 통합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제주가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거주 외국인 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국제자유도시 추진이라는 거대한 세계로의 개방화를 서두르는 지금 제주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역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뮤지엄 아카데미’와 ‘박물관 토요일강좌’를 통해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전문적·학술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지역주민의 지식 함양과 지역의 문화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며, 초·중등 교원 문화연수는 박물관과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 해 주고 있다.

## ① 가족프로그램

### 가. 문화영화

경기도박물관에서는 문화 영역의 확대를 위해 문화영화를 상영하고 있으며 상영 횟수는 특별영화를 포함하여 502회이고, 관람인원은 5만 여명에 이른다. 문화영화는 어린이, 가족 중심의 영화를 선정하여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방문이 잦은 오전에는 만화영화를 상영하여 어린이들의 동심을 자극하였고, 자유 관람객이 많은 오후에는 역사·문화·예술 관련 다큐멘터리를 상영하여 전시 관람으로 지친 관람객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나. 전통 민속놀이 공연

전통공연을 통한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부응하고, 볼거리 제공 및 가족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매일 둘째 일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박물관 강당 및 야외 공연장에서 전통 민속놀이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총 12회 공연에 관객 5,200여 명이 참여하였다.

### 다. 문화답사

회원들 간의 유대감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년 전국에 있는 역사 문화 유적지를 찾아 떠나는 가족 단위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동별곡 기행’, ‘한국의 미(美)’라는 주제로 답사를 진행하여 총 140 가족 560명이 참여하였다.

#### 라. 전통혼례

전통혼례 문화의 원형을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하여 전통 혼례 진행과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혼례복, 혼례용품 일체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 사회소외계층에게 우선 혜택이 주어지며 혼례 건수는 총 20회이다.

#### 마. 우리가족 박물관 여행

주말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전통문화를 체험해 봄으로서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세대간, 가족간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한지로 만드는 전통 등 이야기’ 주제로 7회 420명이 참여하였다.

#### 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스리랑카 문화의 날 행사

스리랑카 문화의 날을 맞아 용인이주민노동자쉼터, 스리랑카 이주민 단체와 함께 전통춤 공연, 전통놀이 체험, 전시 및 전통악기·의상 체험, 전통음식 체험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이주민들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관람인원은 약 2,000(외국인 300여명)여명 이다.

#### 사. 여름방학 특별체험 행사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8월 중 14일 간 체험행사(토기 만들기, 타일 만들기, 탁본 체험, 대나무 물총놀이, 제기 만들기, 가훈 써주기), 상설체험 시연 및 지도(민속놀이, 전통악기), 기념품 추첨 증정, 찾아가는 경기도박물관 운영, 고고학 일일 체험 행사를 개최하여 참가인원은 11,460명에 이른다.

### ② 어린이프로그램

#### 가. 조랑조랑 따라하기

어린이들에게 놀이와 체험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며, 재미있는 인형극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박물관에서 지켜야 할 예절도 함께 배우게 하고자 기획된 유치원 연계 프로그램이다. 5~7세 어린이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창의적이며

바른 꿈을 키워가는 어린이' 주제로 연 28회(28단체) 954명이 참여하였다.

#### 나. 동동하하! 우리문화 배우기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론 및 체험을 해 보게 하고 이와 관련 있는 곳으로 답사를 하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겨울방학에는 '깊이로 엮어보는 생활의 지혜', 여름방학에는 '옛그림을 통해 본 선조들의 여름나기'를 주제로 총 4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 다. 어린이 발굴체험 교실 '상상고고(想像考古)'

청동기시대 고인돌 및 집터 발굴체험 교육프로그램으로 유치원생들에게는 모래놀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발굴을 하고 연극을 통해 재미를 느끼게 하고 저학년 학생에게는 발굴한 유물로 역할극을 하여 옛사람의 생활상을 이해하게 하며 고학년은 발굴 유적과 유물을 단서로 추리력과 상상력을 자극하여 청동기 시대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또한 여름방학 이벤트로서 '역사의 조각을 맞춰라'라는 퍼즐맞추기 대회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박물관 회원 가족 10팀을 대상으로 '박물관과 함께하는 우리가족 고고학 여행'을 개최 하였다. 발굴체험교실은 연 95회 개최로 2,850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였다.

#### 라. 초등학생 문화재 그림그리기 대회

어린이들이 문화재를 직접 보고, 느끼고, 그려봄으로써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착심을 제고할 수 있는 대회로 매년마다 경기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박물관 전시물을 소재로 한 자유화 그리기 경연대회이다.

#### 마. 찾아가는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내 문화 소외지역을 위해 <찾아가는 경기도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이동 박물관으로 문화 향유의 기회가 비교적 적은 100명 이하 초등학교, 특수학교, 사회복지시설, 지역 축제 등에 직접 찾아가서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운영 횟수는 총 95회로 참가인원은 16,365명에 이른다.

### ③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중 ‘우리는 역사탐험가’는 발굴체험을 통하여 매장 문화재가 어떻게 수집되고 보존·처리되어 전시실에 전시되는지를 알게 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고자 기획되었다. 또한 수능을 마친 학생들에게 박물관에서 하는 다양한 일들과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소개와 박물관 관련 영상 시청과 전시실 관람을 통하여 박물관에 대한 이해 증진과 친근감을 갖게 하고자 마련된 ‘고3 수험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는 역사탐험가’는 홀로 빛어보는 선사시대라는 주제로 4월~10월 동안 셋째주 토요일에 운영되어 5개교 137명이 참여 하였으며 ‘고3 수험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직업으로서의 박물관 인(人)이라는 주제로 9개교 3,262명이 참여하였다.

### ④ 성인 프로그램

#### 가. 뮤지엄 아카데미

뮤지엄 아카데미는 전문적·학술적 강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일반인들의 요구에 따라 역사와 문화사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상반기 교육주제는 ‘서양 근대의 형성,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으로 한 차례의 답사를 포함하여 8주간 매주 수요일 진행되었으며 수강인원은 288명이다. 하반기에는 ‘자연, 과학 그리고 인간’이라는 주제로 답사를 포함하여 8주간 진행하여 193명이 수강하였다.

#### 나. 초·중등 교원 문화연수

경기도내 초·중등 교원이 현장학습에 실제 응용할 수 있는 강좌이며 박물관과 학교교육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방학 기간 중 개최한다. 총 8일에 걸쳐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강좌와 답사,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초·중등 교원 문화연수 세부내용

기 간	문화연수 세부내용
제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li> <li>· 한국 박물관 100년</li> <li>·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li> </ul>
제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 발굴조사</li> <li>· 경기도 문화재와 문화 콘텐츠 개발</li> <li>· 탈 만들기와 탈춤 배우기</li> </ul>
제 3일	여주지역 답사(영릉, 대로사비, 신륵사, 고달사지)
제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역사의 하늘과 별자리</li> <li>· 정조와 화성</li> <li>· 민요 배워보기</li> </ul>
제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회화사</li> <li>· 한국 불교미술사</li> <li>· 의례를 통해 본 조선시대 왕실문화</li> </ul>
제 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고대사</li> <li>· 고려시대 사람들의 경제생활</li> <li>· 양반의 구조와 문화</li> </ul>
제 7일	국립박물관, 경복궁 관람
제 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박물관 관람</li> <li>· 전통문양 가방 만들기</li> </ul>

\* 자료 출처 : 『경기도박물관 연보 2009』 제13호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재작성.

#### 다. 박물관 토요강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및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고, 사회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경기도박물관 학예사들의 진행으로 이뤄진다. <표 3>과 같이 ‘박물관에서 듣는 한국문화사’라는 주제로 상반기에는 박물관의 기능, 소장품 관리 등의 강좌가 진행되고 하반기에는 경기도 문화를 중심으로 한 한국문화사에 대한 강좌가 이루어 진다.

<표 3> 박물관 토요강좌 일정 및 내용

일 정	주 제	수강인원
5/16	박물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상반기(60명)
5/23	박물관 소장품 관리	
5/30	박물관 유물 수집의 방법	
6/06	유물의 과학적 보존	
6/13	박물관 전시의 세계	
6/20	박물관 두배로 즐기기	

10/24	조선시대 출토복식의 발굴과 보존	하반기(180명)
10/31	한국의 탑	
11/07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11/14	청동기시대 마을 이야기	
11/24	조선시대 궁중 장식화	
11/28	경기도사	

\* 자료 출처 : 『경기도박물관 연보 2009』 제13호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재작성.

#### 라. 박물관 인턴십

박물관 관련학과의 대학원 재학생 이상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정기 교육을 통해 박물관 전문인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6개월의 전시준비 보조, 학술연구 조사 및 연구 보조, 유물관리 보조, 보존과학 보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조, 박물관 홍보의 보조 실습기간을 거치게 되며 상하반기 총 8명의 수료자를 양성하였다.

#### 마.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명상교실

명상을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 명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명상법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3회에 걸쳐 90여명이 참여하였다.

#### 바. 석가탄신일 기념 특별강연

‘불교미술을 통해 본 석가모니 부처의 생애와 그 의미’라는 주제로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개최하는 불교미술 특강으로 석가모니 부처의 생애 중 중요한 순간을 표현한 미술 작품을 이해함으로써 불타의 탄생과 생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사. 문화자원봉사

관람객들의 전시 이해를 돕기 위해 문화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다. 1999년 ‘몽골 유목문화대전’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각종 체험코너, 행사, 교육프로그램 등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박물관은 문화자원봉사자의 질 높은 안내 서비스를 위해 매년 두 차례 정기답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질적 향상과 유대감 증진을 꾀하고 있다.

매일 4~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37명이 문화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활동 중이다.

## ⑤ 사회복지 프로그램

### 가. 주한 외국인 우리문화 체험

경기도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하기 - 한국의 전통음식’을 주제로 하여 이론 설명과 함께 한국의 전통음식과 향토음식, 김장 김치 담그기 등을 실습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용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화성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참여하여 390명이 참가하였다.

### 나. 내일을 꿈꾸는 어린이 문화체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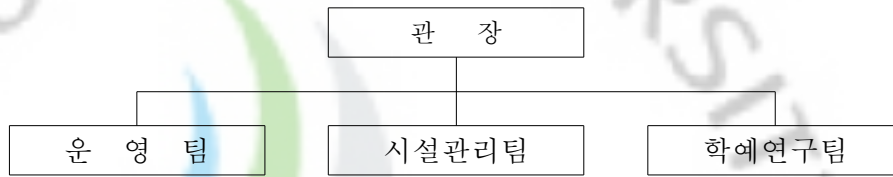
비교적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설 어린이와 장애 어린이들에게 박물관 관람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혜택의 격차를 줄이고, 신나는 타악기의 선율로 내면의 정서를 보다 밝게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6회에 걸쳐 특수학교 8개교 196명이 참여하였다.

## 2)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교육프로그램<sup>7)</sup>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2003년 7월 서대문구에 의해 건립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최초의 종합자연사박물관이다. 어린이와 시민들이 자연과 생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돕고, 자연 보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기구는 <그림 2>와 같이 3팀으로 구성·운영되며 관장은 관련분야 전문인을 공모제를 통해 임명하고 있다. 운영팀은 예산·회계 등 박물관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시설관리팀은 박물관 시설 및 가상체험실 운영을, 학예연구팀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7)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연보 2008』 제5호, 2009.

<그림 2>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조직도



<표 4>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일반현황

(2010년말 현재)

2010년 예산 (천원)	관람객(명)	직원현황(명)			자료소장(점)
		운영팀	시설관리팀	학예연구팀	
834,197	332,945	4	5	5	21,897

\* 자료 출처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내부자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중심의 박물관에서 탈피한 체험 중심 전시를 통하여 관람객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학습센터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관람객 구성을 보면 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전체 관람객의 65.1%(206,550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시교육과 교육프로그램이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 운영되고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육수강료 세입이 증가하고 수강료 및 체험실 운영 세입이 전체 세입의 25.5%에 달하고 있는 것은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대부분이 유료강좌 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평가 된다.

전시는 자연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도록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시간적·공간적 순서로 전시되어 있다.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디오라마(Diorama) 형식으로 꾸며져 있으며 박물관이 자체 제작한 교육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전시 공간은 중앙홀과 3개의 주제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홀은 관람객의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중생대 공룡과 익룡 등의 골격이 전시되어 있으며, 3층의 지구환경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형성과정을 비롯하여 지각의 구성 및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2층의 생명전시관은 지구상의 다양한 생물들의 탄

생과 멸종을 설명하고 현재의 다양한 생명체를 전시하고 있으며, 1층의 인간과 자연관은 환경문제와 우리 주변의 자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화석, 광물, 암석, 동물, 식물, 곤충 등 자연사와 관련된 많은 표본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모형과 영상물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매년 분기별로 박물관 소식지 <자연과 자연사>를 발간하여 박물관의 운영이나 전시내용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고, <박물관 관람학습지>를 발간하여 체계적이고 흥미로운 관람을 돕고 있다.

### ① 박물관 교실

청소년들에게 박물관 전시물을 이용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교 교육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자연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 박물관 교실을 운영하여 60개 과목 391강좌를 통해 7,785명이 수강하였다. 학기별로 <표 5>와 같이 유치원 및 학년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마다 각기 다른 교육 제목으로 운영되었다.

학교 교육과 연계한 교육내용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물자료와 실습을 통해 교육함으로써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방학기간에는 일주일 내내 이루어지고, 봄학기과 가을학기에는 주말에 이루어져 학생들의 수강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표 5> 박물관 교실 교육 제목

교육대상	교육학기	교육 제목	비고
유치반(6, 7세)	봄	봄의 전령사 야생화	
	여름	집짓는 선수 거미, 동물 올림픽	
	가을	가을열매 색깔이 바뀌었어요	
	겨울	개와 교양이, 공룡과 놀아 보아요	
초등 1학년	봄	귀염둥이 수달, 우리 동네 꽃나무	
	여름	개구리와 뱀, 모기를 잡아라, 하늘의 헬리콥터 잠자리	
	가을	버섯 친구들, 낙엽이야기	
	겨울	내가 하는 분리 배출, 온도계 만들기	

초등 2학년	봄	내가 만든 정수기, 바다 물고기, 아름다운 나비	
	여름	흙의 마술사 꿈틀이 지렁이, 새들이 사는 세상, 갑옷입은 연체동물	
	가을	우리나라의 철새, 가을 들판의 메뚜기, 지구 탐험대	
	겨울	식물의 겨울나기, 곤충들의 겨울나기, 내 콧속이 까매요	
초등 3학년	봄	바람은 어디로 가는 걸까?, 물속의 작은 생물, 태양 표면 검은점들의 정체	
	여름	헤엄치는 물속 곤충, 달 탐사하기, 나도 기상캐스터, 식물은 어떻게 생겼나요?	
	가을	동굴속 세상, 태양계 행성탐사, 외래생물이란?	
	겨울	구름나라 여행, 현미경 속 곤충 세상, 꼬리가 긴 천체들 살펴보기	
초등 4학년	봄	하천의 역사, 바다는 기름을 싫어해요, 나도 한의사	
	여름	나의 별자리 찾기, 민물고기의 생태, 모래야 넌 어니서 왔니?	
	가을	석탄과 석유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우리나라에도 화석이 있나요, 태양도 에너지예요	
	겨울	화산폭발, 무서운 지진, 고마운 지진, 산성비는 나쁜 비	
초등 5~6학년	봄	암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나도 과학수사대	
	여름	오징어 해부, 맛 뜨거워! 온천	
	가을	우주탐사(명왕성퇴출사건), 생쥐 해부하기	
	겨울	붕어 해부, 나도 광물을 감정할 수 있다	

\* 자료 출처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연보 2008』 제5호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재작성.

## ② 체험 교실

청소년들이 야외에서 자연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봄학기에는 ‘갯벌 속 생물 탐사’ 주제로 안산시 선감어촌체험마을에서 운영하는 바지락양식장에서 갯벌생물 관찰 및 바지락 캐기와 안산어촌민속 전시관 관람을 하였으며 가을학기에서는 ‘우와! 철새들의 천국이다’를 주제로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 충남 서산 천수만을 탐방하여 겨울 철새를 관찰하였다. 교육인원은 초등학생 회원 66명과 분당교육문화원 초등학생과 부모 40명으로 유료 강좌이다.

체험 교실은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박물관 전시내용만으로는 부족한 교육 기능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수강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가족과 함께하는 건전한 여가 선용의 장으로서 전문적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지역시민들에게 자연생태 보호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자연 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 ③ 박물관 투어

박물관 관람 자체가 교육프로그램인 박물관 투어는 자세한 전시설명을 관람객의 수준과 시간에 맞춰 제공할 뿐 아니라 관람학습지를 이용함으로써 높은 교육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기간은 방학 중(1월, 8월) 주 4회, 학기 중(2~7월, 9~12월) 주말 및 공휴일이며 210강좌를 개최하여 1,954명이 수강하였다.

전시 해설 패널만으로는 부족한 전시내용의 이해를 돕고 지루할 수 있는 전시실 관람을 학예사의 직접적인 설명과 체험학습지 작성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지식 전달기능과 함께 흥미로움을 느끼게 해 박물관이 친숙한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④ 단체 교실

20인 또는 10인 이상 교육을 희망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에 개설된 강좌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에게 학교교육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자연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단체 박물관교실은 28과목 33강좌가 개최되어 655명이 수강하였고, 단체 박물관 투어는 21강좌가 개최되어 196명이 수강하였다.

교육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신청과목과 신청일이 수강자의 단체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수강 시간과 수강 내용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여 언제나 함께할 수 있는 지역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제3장 민속자연사박물관 교육프로그램 현황

#### 1.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일반현황

제주지역 내 등록된 박물관은 총 52개관으로 박물관 41개관, 미술관 11개관이 나 된다. 미등록관을 포함한다면 약 90여개 관으로 볼 수 있다. 등록된 박물관을 관리주체별로 살펴보면 <표 6>과 같이 국립은 2개관, 공립은 9개관, 사립은 41개관<sup>8)</sup>이나 된다. 특히 민속, 자연, 식물과 정원, 인형, 건강, 영화 등 다양한 테마로 운영되고 있는 사립박물관은 관람객 유치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 역시 수익 증대를 위한 관람객 대상의 유료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의 공공문화시설로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는 어려움이 많다.

<표 6> 관리주체별 제주지역 박물관 현황

(2010년 3월 현재)

구 분	박물관	미술관	계
국 립	2	-	2
공 립	5	4	9
사 립	33	8	41
계	40	12	52

\* 자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교통 스포츠 현황』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재작성.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에 (사)제주도박물관협회 소속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재료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펼치기도 하였다.

지원사업으로 운영되었던 아프리카박물관 <아프리카 문화체험>, 북촌돌하르방공원 <제주의 생태와 미술활동>, 도깨비공원 <전국 도깨비 미술 공모전>, 제주민속촌박물관 <낙화, 혁필 배워보기>, 한림공원 <어린이 원예교실>, 서재철갤러리자연사랑 <어머니와 함께, 디카체험>, 김영갑갤러리두모악 <내가 본 이어도>, 일출랜드 <자연염색체험> 등은 박물관과 주민과의 연계를 위한 다양한 테마로 구성되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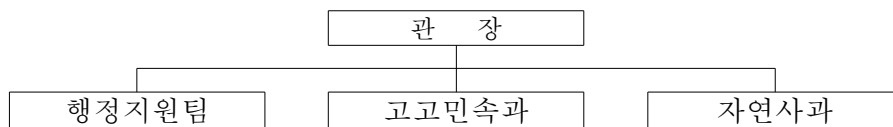
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교통 스포츠 현황』, 2010, 16~19쪽.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제주지역의 대표 박물관으로서 1984년 5월 24에 개관하여 연 100만명의 관람객들이 찾는 제주를 대표하는 종합 박물관이다. 제주 고유의 민속과 자연사 자료에 대한 수집 및 전시, 조사연구, 사회교육, 국내·외 학술교류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여 제주 고유의 민속과 자연 자원을 보존하고 도민과 관람객들에게는 전통문화를 향유하고 제주관광을 선도 하는 경쟁력 있는 문화기반시설로 발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소로 운영되다가 2008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 개편과 더불어 문화진흥본부 내 박물관운영부 소속으로 변경 운영<sup>10)</sup>되었고, 2011년 1월 다시 사업소로 재개편 되었다.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소로서 관장은 지방서기관이 직하고 있고 <그림 3>과 같이 1팀 2과의 기구로 조직되어 현재 행정지원팀 11명, 고고민속과 2명, 자연사과 3명이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행정지원팀은 박물관의 예산·회계 및 운영에 관련된 전반 업무를 담당하며 고고민속과는 민속과 관련된 학예업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연사과는 광물, 식물, 동물, 해양생물 등 자연사 분야의 학예업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3> 민속자연사박물관 조직도



\* 자료 출처 : 민속자연사박물관 내부자료.

<표 7> 민속자연사박물관 일반현황

(2011년 1월말 현재)

2010년 예산 (천원)	관람객(명)	직원현황(명)			자료소장(점)	
		연구	행정	운영	전시	보관
767,957	984,408	5	11	17	4,122	33,459

\* 자료 출처 : 민속자연사박물관 내부자료.

상설전시관은 제주세계자연유산 홍보전시관, 자연사전시실, 제1민속전시실, 제2

9) (사)제주도박물관협의회, 『박물관협의회 결과보고서』, 2010.

10) 문예진흥본부 박물관운영부 소속인 경우 관장은 일반직 5급 사무관이 직하였다.



민속전시실, 특별전시실, 해양생태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자연유산 홍보 전시관은 2007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한라산,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 계를 전시하고, 자연사전시실은 제주의 생성과정과 제주의 식물, 곤충, 동물, 암석 등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전시하였다. 제1민속전시실은 제주인의 일생을 통해 전통 가정의례와 의식주를 보여주며 제2민속전시실은 해녀, 목축, 농업 등 제주의 산업분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야외 전시장에는 대형 용암석과 돌하르방을 비롯하여 돌로 만든 맷돌, 절구, 도구리 등의 생활용구 그리고 정주석, 연자매, 할망당, 돛통시 등이 전시되어 있다. 상설전시관을 통해서 제주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제주의 역사, 자연, 해양, 민속 등에 걸친 전 분야를 소개하여 제주를 한 곳에서 만날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2001년 중국장백산자연사박물관, 2006년 국립중앙과학관, 몽골국립자연사박물관, 2007년 계룡산자연사박물관,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등과 각각 학술 교류를 맺어 활발한 교류사업을 펼치고 있다

박물관은 제주지역 초등학교 체험현장 실습 장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다. 박물관은 지역 내 어린이박물관이 설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제주의 자연과 민속을 실물 자료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며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하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 자연과 민속을 접할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전시물 해설 패널은 보편적인 관람객들을 위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해설 패널을 이용해 전시물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으며, 전시 방법 역시 체험위주가 아닌 진열식 파노라마 형식이어서 흥미로운 전시실 관람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점은 앞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점이다.

## 2. 프로그램 운영현황<sup>11)</sup>과 만족도

초등학생에서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설·추석 민속행사를 비롯하여 과학교실, 생태교실, 해양생물 터치풀, 전통문화 강좌 등 10개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박물관의 교

11)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본부 박물관운영부, 『박물관운영부 연보 2008』, 2009.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본부 박물관운영부, 『박물관운영부 연보 2009』, 2010.

육프로그램은 담당학예사에 의해 기획·운영 되고 있으며, 전통문화강좌와 신나는 과학교실, 갈옷 만들기 등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담당학예사에 의해 운영 계획이 세워지면 홈페이지와 신문, TV 광고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또한 운영 후에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2008년에서 2010년 동안 운영된 교육프로그램은 아래의 <표 8>과 같다.

<표 8>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2008년~2010년)

과 정 명	운영년도	운영기간 및 개최 수	운영대상	수료인원 (명)
자연생태교실	2008	월 1회(6회)	부모, 어린이	240
	2009	"	"	198
	2010	월 1회(6회)	"	281
신나는 과학교실	2008	월 1회(11회)	부모, 어린이	440
	2009	"	"	258
	2010	연 6회(월 1회)	"	249
학예사와 함께 하는 특별전	2009	2.1~10.31	관람객	
	2010	1.1~12.31	"	
민속행사(설, 추석)	2008	설연휴, 추석연휴	관람객	
	2009	"	"	
	2010	"	"	
박물관 탐방교실	2008	7.29~7.30(1회)	초등, 청소년	80
	2009	7.29~7.30(1회)	"	101
	2010	7.28, 7.29(2회)	"	81
해양생물터치풀	2008	8.08~14, 10.24~26(2회)	관람객	
	2009	8.21~8.27(1회)	"	
	2010	8.21~8.27(1회)	"	
찾아가는 이동박물관	2009	8.14~8.16(1회)	추주주민, 관광객	
	2010	8.10~8.13(1회)	"	
갈옷 만들기 (감물 염색)	2008	8.06~8.08	도민, 초등생	90
	2009	8.10~8.13	"	167
	2010	8.06.~8.08	"	90
학예사와의 만남 강좌	2009	9.04~9.25	"	
	2010	9.16~9.17	"	
전통문화 강좌	2008	11.07~11.15	도민	282
	2009	11.05~11.14	"	357
	2010	11.10~11.13	"	194

\* 자료 출처 : 『박물관운영부 연보 2008』, 『박물관운영부 연보 2009』, 민속자연사박물관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재작성.

\* <찾아가는 이동박물관>과 <학예사와의 만남 강좌>는 2009년부터 운영됨.

## 1) 민속자연사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 ① 자연생태교실

매월 넷째주 수업 없는 토요일에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주의 생태자원을 찾아 현장학습 위주로 진행되며 전문 강사를 통한 현장 해설은 참가자들에게 제주지역 생태자원에 더 큰 관심을 갖게 한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오름, 꽃자왈, 철새도래지 등을 찾아 전문 지식 전달과 함께 제주자연의 가치를 느끼고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깨닫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참여도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1회 참여 인원이 40명으로 제한되고 한달에 1회만 이루어지고 있어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

<표 9> 자연생태교실 교육내용

운영년도	운영월	교육내용	장소
2008년	3월	식물의 겨울나기	한라생태숲
	5월	오름의 형성과정과 생태자원 탐방	다랑쉬오름
	6월	한라산 계곡 탐사	관음사코스
	9월	습지생물(식물, 조류, 버섯, 양서류, 파충류)에 대한 생태적 관찰	물영아리오름
	10월	오름의 화산활동과 생태가치 - 노꼬메오름 주변 오름과 꽃자왈의 형성과정, 동식물의 생태관찰	노꼬메오름
	11월	겨울철새의 종류와 습성 알아보기 - 천년기념물 저어새 관찰	노꼬메오름
2009년	3월	어승생악 탐사, 한오름, 습지 생태계 탐사	물영아리오름
	4월	선흘 꽃자왈 탐사	선흘동백동산
	5월	어승생악 탐사, 한라산탐방안내소 관람	어승생악
	7월	군산, 안덕계곡, 상록수림지대 탐사	안덕면 감산리
	9월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탐사	거문오름
	10월	노꼬메 오름 탐사	노꼬메오름
2010년	3월	선흘리 꽃자왈에서 사는 야생동물들의 종류와 생태 알아보기	선흘리꽃자왈
	4월	저지오름에 사는 동물들의 종류와 생태 알아보기	저지오름
	5월	물영아리 오름의 생태적 가치와 국제람사습지 등록의 의미 알아보기	물영아리
	6월	독사(쇠살모사, 코브라 등)의 종류와 해부학적 구조, 생태, 습성 알아보기, 제주도 뱀 종류의 관찰	박물관시청각실

9월	갯물오름과 작은 노꼬메에 서식하는 동식물 생태 관찰하기,	갯물오름
10월	선흘 꽃자왈의 동식물 생태 관찰하고 채집하여 발표하기	선흘리꽃자왈
11월	성산포 칠새도래지에서 월동하는 겨울철새 관찰하기	성산포칠새도래지

\* 자료 출처 : 『박물관운영부 연보 2008』, 『박물관운영부 연보 2009』, 민속자연사박물관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재작성.

## ② 신나는 과학교실

매월 둘째주 수업 없는 토요일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과학탐구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연과학과 생활과학 분야에 대한 과학적 사고를 함양시키고 특별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표 10>과 같이 교육내용에 따라 현장 체험과 박물관 시청각실을 이용한 만들기 체험 등 딱딱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난 실습위주의 진행과 흥미로운 주제 선택으로 박물관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있지만 실습 교육시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표 10> 신나는 과학교실 운영내용

운영 년도	운영일	교 육 내 용	장 소
2008년	2/23	겨울철새 탐조	하도리칠새도래지
	4/12	남극의 세계	박물관 시청각실
	5/10	천연 염색	박물관 광장
	6/14	에너지의 종류와 에너지 절약 지혜 습득	박물관 시청각실
	7/12	습지에 사는 곤충에 대한 습성	남원읍 일대
	8/09	자연물을 이용한 곤충 체험	박물관 광장
	10/11	노루생태 관찰 및 성읍민속마을 나들이	노루생태관찰원
	12/13	천연기념물 205호(저어새) 등 탐조활동	하도리칠새도래지
	12/27	바닷물은 왜 짭까요? - 바닷물고기 생식과정, 생산 및 사육과정 알아보기	해양자원연구소
2009년	3월	꽃자왈 야생동물의 흔적, 생태 알아보기, 야생동물의 발자국 그려보기	꽃자왈(선흘리)
	4월	남극의 세종기지를 찾아가기, 남극의 동물, 식물 알아 맞추기	박물관 시청각실
	6월	야생동물의 흔적(배설물, 동물사체, 깃털, 먹이 등) 찾기, 곤충 채집 등	저지오름(저지리)

	7월	거문오름의 화산활동과 자연유산의 가치, 만장굴의 형성과정, 생성물 특징 알아보기	검은오름, 만장굴
	10월	신재생 에너지와 제주의 미래, 풍력발전 키트 만들기 체험	박물관 시청각실
	11월	에어로켓 만들기 체험 -공기압, 발사각도에 따른 발사 실험 등	박물관 광장
2010년	3월	새와 비행기의 비행원리 이해 -새비행기 제작과정의 습득, 직접 만들어 날려보기 체험	박물관 시청각실
	4월	로켓의 원리와 응용 사례 -에어로켓 제작과정의 습득과 직접 만들어 날려보기 체험	"
	5월	남극과 북극의 차이, 남극의 세종기지와 한국 연구원들의 연구 성과	"
	6월	천연염색의 효능과 종류, 생활용품의 사례 -양과즙을 이용한 휴대용 가방 만들기	"
	9월	긴꼬리딱새와 팔색조의 번식 생태 -퀴즈로 풀어보는 새의 일생 -자연물을 이용하여 솔부엉이 만들기	"
	10월	식물의 광합성은 어떻게 진행될까?	"

\* 자료 출처 : 『박물관운영부 연보 2008』, 『박물관운영부 연보 2009』, 민속자연사박물관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제작성.

### ③ 설 · 추석 민속행사

민족의 대명절 설과 추석을 맞이하여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속놀이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민속놀이로는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팽이치기, 연날리기, 굴렁쇠 굴리기 등을 하고 있다. 또한 향토음식인 빕떡을 시식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외 보물찾기, 포토존 사진 촬영 등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민속놀이를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는 어린이들과 외국 관람객들에게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④ 박물관 탐방교실

여름방학을 맞아 도내 청소년(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제주도의 자연과 역사, 민속에 대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08년에는 제주시 교육청, 일선 학교와 연계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특히 2009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후원을 받아 교육복



지투자우선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제주도의 자연과 역사, 그리고 민속문화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2일 2팀으로 나누어 ‘7치부는 바람, 2009 박물관 탐방교실’을 운영하였으며, 2010년 현장 탐방과 함께 솔부엉이 제작, 곤충 채집, 곤충 표본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표 11> 박물관 탐방교실 운영내용

운영년도	월 일	탐 방 장 소	참가인원
2008년	7/29	민속자연사박물관, 4·3평화기념관, 제주목관아지	제주시교육청 지정 동부지역 11개교
	7/30	거문오름, 제주국립박물관	"
2009년	7/27	해녀박물관, 제주항일기념관, 만장굴, 제주돌문화공원	도교육청 지정 초·중학교 6개교
	7/28	수월봉 기상대, 민속자연사박물관, 고산리 유적 발굴현장, 서부농업기술센터, 제주현대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
2010년	7/28	천지연 폭포, 서귀포층, 주상절리, 프시케월드, 솔부엉이 제작	도교육청 지정 초·중학교 9개교
	7/29	거문오름 트레킹, 곤충 채집, 곤충 표본 만들기	"

\* 자료 출처 : 『박물관운영부 연보 2008』, 『박물관운영부 연보 2009』, 민속자연사박물관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제작성.

### ⑤ 갈옷 만들기(감물 염색)

제주전통문화의 하나인 갈옷의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바로 알고 감물염색 체험과 전통문양을 이용한 현대적인 무늬 만들기를 통해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감을 따서 직접 염료를 만드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현대적인 방법으로는 분쇄기로 감즙을 착즙하여 의류에 무늬 염을 입히는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2010년에는 <표 12>에서와 같이 단순한 감물 염색 체험뿐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한 이론 강좌와 감물가방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이 더해져 운영되었다. 최근 감물염색에 대한 관심이 높아 프로그램의 지원 희망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인원이 30명으로 제한되고 기간도 연 1회, 3일간으로 한정되어 있어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표 12> 갈옷만들기 운영내용

운영년도	운영기간	운영내용	참가인원
2008년	8/6~8/8	감물 염색 체험	초등학생 및 성인 90명
2009년	8/10~8/13	"	초등학생 및 성인 167명
2010년	8/12	· 전통문양 활용 무늬만들기	성인 30명
	8/13	· 붓으로 글씨 써 놓기, 문자도형 만들기	"
	8/14	· 갈옷의 효용성 강좌 · 꽃감의 특성, 감즙 만들기, 물들이기, 바래기의 과정 체험 · 보조가방에 문양찍기	초등학생 30명

\* 자료 출처 : 『박물관운영부 연보 2008』, 『박물관운영부 연보 2009』, 민속자연사박물관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제작성.

#### ⑥ 이동박물관

‘추자도 이동박물관’은 추자도 산골비 축제와 연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적 소외 지역인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주의 옛 모습과 아름다운 자연자원 사진 전시를 통해 지역축제 발전에 일조하기 위해 기획되어 운영되고 있다. 행사장에서 제주 옛 사진, 바다 비경사진 40여점을 전시하였으며, 체험행사로는 솔방울을 이용한 가시복과 솔부엉이 만들기를, 그리고 탐사 프로그램으로는 추자도 해안생태 탐사(지질, 해양생물)를 각각 실시하였다.

#### ⑦ 해양생물 체험 한마당

제주바다의 살아 있는 생물들(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패류, 극피동물 등)을 직접 만져보고 관찰하면서 해양생물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생태자원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여름방학 기간 중 개최되며 살아있는 바다 생물을 직접 만져보고, 관찰하며,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설명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큰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관람객들에게는 독특한 제주의 해양생물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체험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 ⑧ 학예사와 함께하는 특별전

연중 기획 전시되고 있는 특별전에 대해 해설 패널만으로는 부족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전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에 담당 학예사가 직접 설명해 주고 있어 관람객들에게 흥미로운 관람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자의 대부분이 관람객인 것을 감안하여 단체 신청의 경우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등의 참여자를 위한 시간적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 ⑨ 학예사와의 만남

박물관 전시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민들에게 박물관 학예사와의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 전문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강좌는 <표 13>과 같이 진행되며 이는 수강자들의 잘못된 지식 전달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 기획되었다. 도내 관광안내원과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대상으로 박물관 전시내용을 중심으로 강좌가 이루어져 수강생들에게 올바른 전시물 해설과 제주 바로 알리기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운영결과<sup>12)</sup>에 의하면 참여자들의 관심이 저조하고 일반인들의 호응도가 낮다고 평가하고 있어 운영 전반에 걸친 개편이 요구된다.

<표 13> 학예사와의 만남 강좌내용

운영년도	운영일	강 의 과 목	참가인원
2009년	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마을제의 고유성 이해</li> <li>· 제주 용암동굴</li> <li>· 어개류(漁介類)에 관한 상식</li> </ul>	교사, 관광안내원 등 90여명
	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문서를 통해 본 제주인의 삶</li> <li>· 제주, 세계자연유산</li> <li>· 옹주석, 제주돌하르방에 대한 이해</li> </ul>	
	9/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세계자연유산 야생동물의 생태</li> <li>· 웰빙식품으로서의 해조류 이용</li> </ul>	
	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해녀의 가치와 해녀 문화유산/제주민요산책</li> </ul>	
2010년	9/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를 찾은 희귀조류</li> <li>· 주요 어개류(魚介類)의 특징</li> </ul>	관광안내원 등 53명
	9/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옛 제주인의 문서생활</li> <li>· 제주연안의 고래류와 드렁허리</li> </ul>	

\* 자료 출처 : 『박물관운영부 연보 2008』, 『박물관운영부 연보 2009』, 민속자연사박물관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재작성.

12) 민속자연사박물관 내부문서 ‘학예사와의 만남 프로그램 운영결과’ (2010년 10월 1일 등록)를 참조함.

### ⑩ 전통문화 강좌

제주의 독특하고 다양한 민속문화에 대한 강좌 프로그램으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제주의 민속과 지역사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과 함께 지역주민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 운영되고 있다. 해마다 <표 14>와 같이 주제 내용을 달리하고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되어 지역주민들의 지식 욕구 충족과 지역문화에 대한 전문지식 전달에 노력하고 있다.

<표 14> 전통문화 강좌 명

운영년도	운영일	강좌명	수강인원
2008년	11/07	제주의 옛지도와 지명	282명
	11/08	제주의 오름, 마을, 바다이름	
	11/09	옛 이름 오름을 찾아서	
	11/13	한국의 민화	
	11/14	제주민화의 이해	
	11/15	박물관, 미술관 현장학습	
2009년	11/05	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300년 전의 제주	357명
	11/06	청사에 빛나는 제주여성 김만덕	
	11/07	제주의 명당과 풍수(산과 물의 조화)	
		제주오름의 지맥과 하천	
	11/12	제주어와 오름	
	11/13	제주 여성문화(창조의 여신들)	
작가와의 대화(제주어 시 산책)			
11/14	체험 교육 실습(전통공예)		
2010년	11/10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신화	194명
	11/11	제주시 유배문학, 잉카문명과 제주건축	
	11/12	제주의 향토음식 문화	
	11/13	모시재료 이용 연잎 다포 만들기(체험)	

\* 자료 출처 : 『박물관운영부 연보 2008』, 『박물관운영부 연보 2009』, 민속자연사박물관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제작성.

### 2) 민속자연사박물관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 중 자연생태교실, 신나는 과학교실, 박물관 탐방교실, 갈옷 만들기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표 15>와 같다.

<표 15>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자연생태교실(2010년 9월)		설문 대상 : 28명				
평가질문	매우 긍정	긍정	보통	부정	매우 부정	
내용은 유익했나요?	18 (64.3%)	7 (25%)	2 (7.1%)	1 (3.6%)		
시간은 적절했나요?	11 (39.3%)	11 (39.3%)	5 (17.8%)	1 (3.6%)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주셨나요?	18 (64.3%)	10 (35.7%)				
자연에 대한 흥미가 높아 졌나요?	14 (50%)	10 (35.7%)	3 (10.7%)		1 (3.6%)	
신나는 과학교실(2009년 3월)		설문 대상 : 24명				
평가질문	매우 긍정	긍정	보통	부정	매우 부정	
과학교실에 집중해서 참여했나요?	7 (29.2%)	7 (29.2%)	10 (41.6%)			
과학교실의 내용은 유익했나요?	6 (25%)	15 (62.5%)	3 (12.5%)			
진행 시간은 적절했나요?	8 (33.3%)	10 (41.7%)	5 (20.8%)	1 (4.2%)		
선생님이 친절히 설명해 주셨나요?	19 (79.1%)	4 (16.7%)	1 (4.2%)			
과학적 호기심이 높아졌나요?	10 (41.6%)	9 (37.5%)	4 (16.7%)	1 (4.2%)		
박물관 탐방교실(2010년 7월)		설문 대상 : 62명				
평가질문	매우 긍정	긍정	보통	부정	매우 부정	
현장체험 내용은 유익했나요?	33 (53.2%)	24 (38.7%)	5 (8.1%)			
진행되는 시간은 적절하였나요?	27 (43.5%)	20 (32.2%)	11 (17.7%)	3 (4.8%)	1 (1.6%)	
각 그룹별 인원은 적당했나요?	29 (46.8%)	21 (33.9%)	11 (17.7%)	1 (1.6%)		
선생님께서 쉽게 설명해 주셨나요?	38 (61.3%)	19 (30.6%)	5 (8.1%)			
자연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나요?	35 (56.4%)	22 (35.5%)	5 (8.1%)			
갈옷 만들기(2009년 8월)		설문 대상 : 70명				
평가질문	매우 긍정	긍정	보통	부정	매우 부정	
교육 내용이 흥미로웠나요?	43 (61.4%)	13 (18.6%)	14 (20%)			
강사의 설명이 쉽게 이해되었나요?	27 (38.5%)	24 (34.3%)	14 (20%)	2 (2.9%)	3 (4.3%)	
교육 시간이 짧다고 생각하나요?	11 (15.7%)	16 (22.9%)	27 (38.6%)	10 (14.3%)	3 (4.3%)	

\* 자료 출처 : 민속자연사박물관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제작성.

자연생태교실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3%가 내용이 유익하였다고 응답하였고, 78.6%가 시간이 적절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응답자 모두가 교육강사가 쉽게 설명해 주었다고 응답하였으며 85.7%가 교육프로그램의 참여로 자연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다고 응답하였다.

신나는 과학교실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참여자의 58.4%가 집중하여 참여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운영 내용에 대해서도 87.5%가 유익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운영 시간에 대한 응답에서는 75%가 적절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강사의 설명에 대해서도 95.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79.1%가 교육프로그램의 참여로 인해 과학적 호기심이 높아졌다고 응답하였다.

박물관 탐방교실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91.9%가 현장체험 내용이 유익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진행시간에 대해서도 75.7%가 적절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인원의 적정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80.7%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강사의 설명에 대해서는 91.9%가 쉽게 설명해 주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91.9%가 교육프로그램의 참여로 자연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다고 응답하였다.

갈옷 만들기 만족도 조사에서는 80%가 교육 내용이 흥미로웠다고 응답하였고, 강사의 설명에 대해서도 83%가 쉽게 이해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육시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42%가 교육시간이 짧다고 응답하였다.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참여자들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의 유익 정도, 시간의 적정성, 강사 설명에 대한 이해도, 교육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호기심 유발 정도에 대해서 높은 만족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갈옷 만들기의 경우 운영 시간에 대해서는 42%가 시간이 짧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염색 체험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참여도가 높음에도 3일간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응답 결과라고 이해되며 교육 기간 연장이나 1회성이 아닌 교육의 운영 횟수를 늘리는 등의 개선책이 요구된다.

## 제4장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 1. 설문대상 및 구성

#### 1) 설문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운영되는 교육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여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에 도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학예사와 연구 분야 근무자, 문화관광해설사 등 도내 문화·역사·관광 관련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항목은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하여 개발되었고, 현재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5명을 대상으로 2011년 4월 25일에 사전조사 후 최종 확정하였다. 최종 확정된 설문지는 2011년 4월 26일~5월 4일까지 제주도청 문화예술과를 비롯한 10여개 기관에 연구자 본인이 총 110부를 직접 배포 회수하였다. 이중 105부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한 총 98부를 대상으로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의 응답자 특성은 <표 16>과 같다. 성별 특성 부문은 여성 67.3%, 남성 32.7%로 응답되었으며, 연령 특성 부문은 20대 2%, 30대 23.5%, 40대 37.8%, 50대 27.5%, 60대 이상 9.2%로 응답하였다.

근무지 특성 부문은 도청 문화예술과 14.2%, 민속자연사박물관<sup>13)</sup> 12.2%, 돌문화공원 11.2%,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0.2%, 4.3평화공원 8.2%, 도의회 4.1%, 제주

13) 설문의 신뢰도를 위하여 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분야 근무자는 제외하였다.



문화예술재단 4.1%, 시청 3.1%, 해녀박물관 3.1%, 목관아지 3.1%, 도립미술관 3.1%으로 응답하였다.

담당업무 특성 부문은 해설사 33.7%, 문화예술 관련 사무 10.2%, 문화재 관련 업무 3.1%, 문화예술 관련 기획 3.1%, 학예사 2.0%, 자료입력 2.0%, 의원 보좌 2.0%로 응답하였다.

근무기간 특성 부문은 1년 미만 7.1%, 1년~5년 32.7%, 5년~10년 18.4%, 10년 이상 24.5%으로 응답하였다.

<표 16> 응답자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성별	여성	66	67.3
	남성	32	32.7
	합계	98	100.0
연령	20대	2	2.0
	30대	23	23.5
	40대	37	37.8
	50대	27	27.5
	60대 이상	9	9.2
	합계	98	100.0
근무지	도청 문화예술과	14	14.2
	민속자연사박물관	12	12.2
	돌문화공원	11	11.2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0	10.2
	4.3평화공원	8	8.2
	도의회(문화관광위원실)	4	4.1
	제주문화예술재단	4	4.1
	시청	3	3.1
	해녀박물관	3	3.1
	목관아지	3	3.1
	도립미술관	3	3.1
	무응답	23	23.4
	합계	98	100.0
담당업무	문화관광해설사	33	33.7
	문화예술 관련 사무	10	10.2
	문화재 관련 업무	3	3.1
	문화예술 관련 기획	3	3.1

	학예사	2	2.0
	자료입력	2	2.0
	의원 보좌	2	2.0
	무응답	43	43.9
	합계	98	100.0
근무기간	1년 미만	7	7.1
	1년~5년	32	32.7
	5년~10년	18	18.4
	10년 이상	24	24.5
	기타	1	1.0
	무응답	16	16.3
	합계	98	100.0

### 3) 설문 구성

설문내용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첫째는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에 대한 설문이며, 둘째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실태에 관한 내용이다. 셋째는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것으로 그 세부 항목은 <표 17>과 같다.

<표 17> 설문 구성 내용

조 사 항 목	세 부 항 목
교육프로그램 인지도	-프로그램 인지 정도 -프로그램 인지 통로 -프로그램 참여 여부 및 만족도
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	-운영프로그램 수의 적정성 여부 -민속자연사박물관의 특성 반영 여부 -제주지역사회 요구 부합성 -관광객 욕구 수용성 -운영기간의 적절성 -제주지역 문화정체성 확립 기여도 -사회교육 목표 성취도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 정도 -프로그램의 체험 중심 여부 -수준별 차별성 정도 -학교교육과의 연계성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성화 방안에 대한 중요도</li> <li>-교육담당 전문인력 필요 여부</li> <li>-확대해야 할 프로그램 분야</li> <li>-참여자 확대 방안</li> <li>-확대 교육대상</li> <li>-연계 협력 필요기관</li> <li>-적정 예산액</li> <li>-홍보 강화 매체</li> <li>-선거직 공무원의 인식</li> </ul>
---------------	---

## 2. 교육프로그램 인지도

### 1) 분석 결과

#### ① 프로그램 인지 정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응답결과는 <표 18>과 같다.

자연생태교실 프로그램의 인지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41.8%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36.7%는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신나는 과학교실 프로그램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53%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32.7%는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예사와 함께하는 특별전 프로그램의 인지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53%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6.5%는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민속행사(설, 추석) 프로그램의 인지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59.2%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0.4%는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박물관 탐방교실 프로그램의 인지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48%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32.7%는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해양생물 터치풀 프로그램의 인지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50%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36.7%는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찾아가는 이동박물관 프로그램의 인지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59.2%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2.4%는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갈옷 만들기 프로그램의 인지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57.1%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32.7%는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예사와의 만남 강좌 프로그램의 인지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56.2%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9.6%는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통문화강좌 프로그램의 인지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48%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35.7%는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18> 교육프로그램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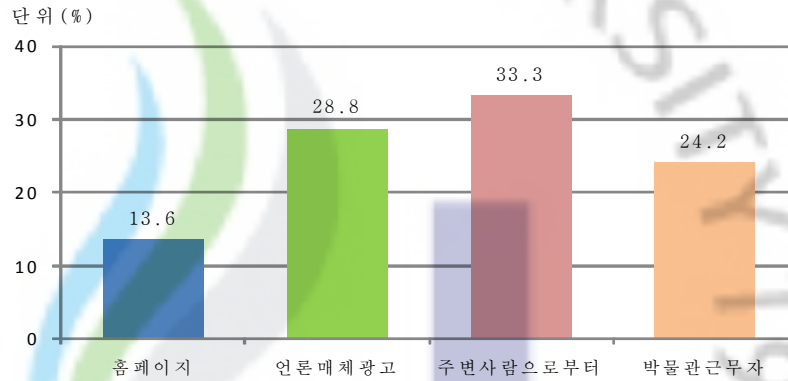
(단위: 명, %)

교육프로그램명	① 잘 모름	② 모름	③ 보통	④ 알고 있음	⑤ 잘 알고 있음	무응답	합계
자연생태교실	26 (26.5)	10 (10.2)	20 (20.4)	35 (35.7)	6 (6.1)	1 (1.0)	98 (100.0)
신나는 과학교실	26 (26.5)	26 (26.5)	12 (12.2)	28 (28.6)	5 (5.1)	1 (1.0)	98 (100.0)
학예사와 함께 하는 특별전	24 (24.5)	28 (28.6)	19 (19.4)	16 (16.3)	10 (10.2)	1 (1.0)	98 (100.0)
민속행사(설, 추석)	16 (16.3)	4 (4.1)	20 (20.4)	37 (37.8)	21 (21.4)	-	98 (100.0)
박물관 탐방교실	24 (24.5)	23 (23.5)	18 (18.4)	23 (23.5)	9 (9.2)	1 (1.0)	98 (100.0)
해양생물 터치풀	27 (27.6)	22 (22.4)	12 (12.2)	26 (26.5)	10 (10.2)	1 (1.0)	98 (100.0)
찾아가는 이동박물관	27 (27.6)	31 (31.6)	16 (16.3)	16 (16.3)	6 (6.1)	2 (2.0)	98 (100.0)
갈옷 만들기	19 (19.4)	11 (11.2)	11 (11.2)	40 (40.8)	16 (16.3)	1 (1.0)	98 (100.0)
학예사와의 만남 강좌	27 (27.6)	28 (28.6)	12 (12.2)	23 (23.5)	6 (6.1)	2 (2.0)	98 (100.0)
전통문화 강좌	22 (22.4)	12 (13.3)	15 (15.3)	33 (33.7)	14 (14.3)	1 (1.0)	98 (100.0)

## ② 프로그램 인지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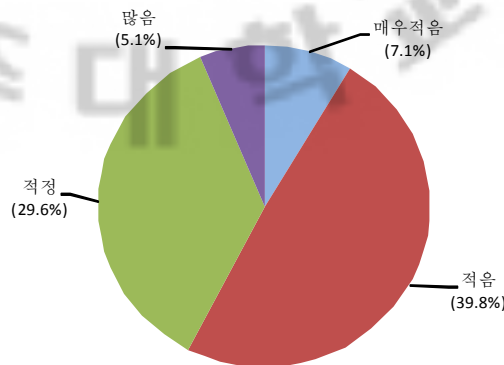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이 개설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33.3%가 주변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언론매체 광고를 통해 28.8%, 민속자연사박물관 근무자를 통해 24.2%, 민속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13.6%가 교육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 교육프로그램 인지 경로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홍보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46.9%가 교육프로그램 홍보활동이 적다고 응답하였으며, 29.6%가 적정하다, 5.1%가 홍보활동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5> 교육프로그램 홍보활동 인식 여부



### ③ 프로그램 참여 여부 및 만족도

“2010년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운영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의 응답결과는 <표 19>와 같다.

자연생태교실 프로그램의 참여정도에 대해 78.6%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회 참여 8.2%, 3회 참여 1%, 4회 이상 참여 1%로 응답하였다.

신나는 과학교실 프로그램의 참여정도에 대해 79.6%가 참여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회 참여 4.1%, 2회 참여 3.1%, 3회 참여 1%로 응답하였다.



학예사와 함께하는 특별전 프로그램의 참여정도에 대해 71.4%가 참여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회 참여 13.3%, 2회 참여 2.3%, 3회 참여 2.3%, 4회 이상 참여 1%로 응답하였다.

민속행사(설, 추석) 프로그램의 참여정도에 대해 71.4%가 참여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회 참여 11.2%, 2회 참여 4.1%, 3회 참여 1%, 4회 이상 참여 2%로 응답하였다.

박물관 탐방교실 프로그램의 참여정도에 대해 81.6%가 참여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회 참여 7.1%, 2회 참여 1%로 응답하였다.

해양생물터치풀 프로그램의 참여정도에 대해 64.3%가 참여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회 참여 17.3%, 2회 참여 4.1%, 3회 참여 1%, 4회 이상 참여 2%로 응답하였다.

찾아가는 이동박물관 프로그램의 참여정도에 대해 82.7%가 참여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회 참여 4.1%, 2회 참여 3.1%로 응답하였다.

갈옷 만들기 프로그램의 참여정도에 대해 75.5%가 참여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회 참여 10.2%, 2회 참여 2%, 4회 이상 참여 2%로 응답하였다.

학예사와 만남 강좌 프로그램의 참여정도에 대해 74.5%가 참여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회 참여 10.2%, 2회 참여 5.1%, 3회 참여 1%로 응답하였다.

전통문화 강좌 프로그램의 참여정도에 대해 71.4%가 참여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회 참여 9.2%, 2회 참여 4.1%, 3회 참여 3.1%, 4회 이상 참여 2%로 응답하였다.

<표 19> 2010년도 교육프로그램 참여 횟수 여부

(단위: 명, %)

교육프로그램명	① 0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이상	무응답	합계
자연생태교실	77 (78.6)	8 (8.2)	-	1 (1.0)	1 (1.0)	11 (11.2)	98 (100.0)
신나는 과학교실	78 (79.6)	4 (4.1)	3 (3.1)	1 (1.0)	-	12 (12.2)	98 (100.0)
학예사와 함께 하는 특별전	70 (71.4)	13 (13.3)	2 (2.3)	2 (2.3)	1 (1.0)	10 (10.2)	98 (100.0)
민속행사(설, 추석)	70 (71.4)	11 (11.2)	4 (4.1)	1 (1.0)	2 (2.0)	10 (10.2)	98 (100.0)

박물관 탐방교실	80 (81.6)	7 (7.1)	1 (1.0)	-	-	10 (10.2)	98 (100.0)
해양생물터치풀	63 (64.3)	17 (17.3)	4 (4.1)	1 (1.0)	2 (2.0)	11 (11.2)	98 (100.0)
찾아가는 이동박물관	81 (82.7)	4 (4.1)	3 (3.1)	-	-	10 (10.2)	98 (100.0)
갈옷 만들기	74 (75.5)	10 (10.2)	2 (2.0)	-	2 (2.0)	10 (10.2)	98 (100.0)
학예사와의 만남 강좌	73 (74.5)	10 (10.2)	5 (5.1)	1 (1.0)	-	9 (9.2)	98 (100.0)
전통문화 강좌	70 (71.4)	9 (9.2)	4 (4.1)	3 (3.1)	2 (2.0)	10 (10.2)	98 (100.0)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1회 이상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참여한 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의 응답결과는 <표 20>과 같다.

자연생태교실 프로그램의 만족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19명 중 63.1%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5.3%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신나는 과학교실 프로그램의 만족 여부에 대해 전체 15명 중 4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6.7%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학예사와 함께하는 특별전 프로그램의 만족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21명 중 38.1%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9.5%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민속행사(설, 추석) 프로그램의 만족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27명 중 38.11%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9.5%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박물관 탐방교실 프로그램의 만족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15명 중 33.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6.7%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해양생물터치풀 프로그램의 만족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23명 중 33.51%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7.4%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찾아가는 이동 박물관 프로그램의 만족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10명 중 30.1%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0%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갈옷 만들기 프로그램의 만족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19명 중 31.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1.1%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학예사와 만남 강좌 프로그램의 만족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22명 중 45.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9%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전통문화 강좌 프로그램의 만족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22명 중 44.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9%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20> 교육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단위: 명, %)

교육프로그램명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합계
자연생태교실	-	1 (5.3)	6 (31.6)	10 (52.6)	2 (10.5)	19 (100.0)
신나는 과학교실	-	1 (6.7)	8 (53.3)	4 (26.7)	2 (13.3)	15 (100.0)
학예사와 함께 하는 특별전	-	2 (9.5)	11 (52.4)	7 (33.3)	1 (4.8)	21 (100.0)
민속행사(설, 추석)	-	2 (9.5)	11 (52.4)	7 (33.3)	1 (4.8)	27 (100.0)
박물관 탐방교실	-	1 (6.7)	9 (60.0)	5 (33.3)	-	15 (100.0)
해양생물터치풀	-	4 (17.4)	9 (39.1)	6 (26.1)	4 (17.4)	23 (100.0)
찾아가는 이동박물관	-	2 (20.0)	5 (50.0)	3 (30.0)	-	10 (100.0)
갈옷 만들기	1 (5.3)	3 (15.8)	9 (47.4)	4 (21.1)	2 (10.5)	19 (100.0)
학예사와의 만남 강좌	1 (4.5)	1 (4.5)	10 (45.5)	8 (36.4)	2 (9.1)	22 (100.0)
전통문화 강좌	1 (4.5)	1 (4.5)	10 (45.5)	7 (31.8)	3 (13.6)	22 (100.0)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 55명을 대상으로 “왜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라는 질문에 41.8%가 프로그램이 개설된 것을 몰랐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이 맞지 않았다 34.5%,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심이 없다 20%, 다른 기관에서도 수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21>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구 분	빈도(명)	비율(%)
프로그램이 개설된 것을 몰랐다	23	41.8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심이 없다	11	20.0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이 맞지 않았다	19	34.5
다른 기관에서도 수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1.8
기타	1	1.8
합계	55	100.0

## 2) 시사점

인지도 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문화, 관광에 관심을 갖고 있는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음에도 그 인지도가 낮았고, 인지 경로도 주변사람을 통하여거나 근무자를 통해 알았다는 응답자가 57.5%로 나타나, 현재의 박물관 홍보활동에 대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소극적인 홍보활동은 제한적 범위의 참여자를 대상으로만 운영되는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또한 참여도에서도 개설된 것을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응답이 41.8%로 나타나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홍보 활동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인다. 또한 만족도에서도 70%를 넘지 못하고 있어 프로그램의 내용, 진행, 시간 등의 다각적인 면에서 개선책이 요구된다. 교육프로그램 홍보 활동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요구 되어 진다.

## 3. 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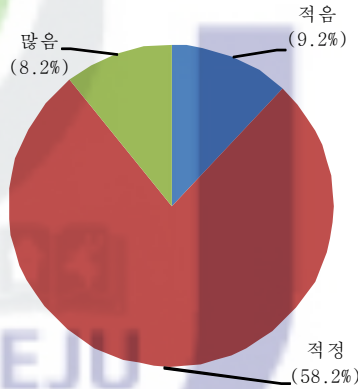
### 1) 분석 결과

#### ① 운영프로그램의 수의 적정성 여부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2010년도 10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운영프로그램 수가 적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58.2%

가 프로그램 수는 적절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9.2%는 프로그램 수가 적었다, 8.2%는 프로그램 수가 많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6> 2010년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수 적정 여부



## ② 민속자연사박물관의 특성 반영 여부

2010년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운영된 프로그램들에 대해 “교육프로그램들은 박물관의 특성을 잘 반영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의 응답결과는 <표 21>과 같다.

자연생태교실 프로그램이 박물관의 특성 반영 여부에 대해 46.9%가 반영이 잘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는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신나는 과학교실 프로그램이 박물관의 특성 반영 여부에 대해 32.6%가 반영이 잘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3.1%는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학예사와 함께하는 특별전 프로그램이 박물관의 특성 반영 여부에 대해 40.8%가 반영이 잘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9.2%는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민속행사(설, 추석) 프로그램이 박물관의 특성 반영 여부에 대해 41.9%가 반영이 잘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5.1%는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박물관 탐방교실 프로그램이 박물관의 특성 반영 여부에 대해 45.9%가 반영이 잘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3.1%는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해양생물터치풀 프로그램이 박물관의 특성 반영 여부에 대해 40.8%가 반영이



잘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5.1%는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찾아가는 이동박물관 프로그램이 박물관의 특성 반영 여부에 대해 31.6%가 반영이 잘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7.1%는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갈옷 만들기 프로그램이 박물관의 특성 반영 여부에 대해 48%가 반영이 잘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5.1%는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학예사와의 만남강좌 프로그램이 박물관의 특성 반영 여부에 대해 35.7%가 반영이 잘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6.1%는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전통문화 강좌 프로그램이 박물관의 특성 반영 여부에 대해 46.9%가 반영이 잘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4.1%는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22> 2010년도 교육프로그램의 민속자연사박물관 특성 반영 여부

(단위: 명, %)

교육프로그램명	① 매우 못함	② 못함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무응답	합계
자연생태교실	-	1 (1.0)	34 (34.7)	36 (36.7)	10 (10.2)	17 (17.3)	98 (100.0)
신나는 과학교실	-	3 (3.1)	43 (43.9)	26 (26.5)	6 (6.1)	20 (20.4)	98 (100.0)
학예사와 함께 하는 특별전	-	9 (9.2)	34 (34.7)	33 (33.7)	7 (7.1)	15 (15.3)	98 (100.0)
민속행사(설, 추석)	1 (1.0)	4 (4.1)	36 (36.7)	28 (28.6)	13 (13.3)	16 (16.3)	98 (100.0)
박물관 탐방교실	-	3 (3.1)	31 (31.6)	34 (34.7)	11 (11.2)	19 (19.4)	98 (100.0)
해양생물터치풀	-	5 (5.1)	36 (36.7)	34 (34.7)	6 (6.1)	17 (17.3)	98 (100.0)
찾아가는 이동박물관	1 (1.0)	6 (6.1)	40 (40.8)	24 (24.5)	7 (7.1)	20 (20.4)	98 (100.0)
갈옷 만들기	1 (1.0)	4 (4.1)	30 (30.6)	37 (37.8)	10 (10.2)	16 (16.3)	98 (100.0)
학예사와의 만남 강좌	1 (1.0)	5 (5.1)	42 (42.9)	26 (26.5)	9 (9.2)	15 (15.3)	98 (100.0)
전통문화 강좌	1 (1.0)	3 (3.1)	33 (33.7)	35 (35.7)	11 (11.2)	15 (15.3)	98 (100.0)

### ③ 제주지역사회 요구 부합성

2010년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운영된 프로그램들에 대해 “제주지역사회의 요구를 잘 반영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의 응답결과는 <표 23>과 같다.

자연생태교실 프로그램이 제주지역사회 요구 반영 여부에 대해 55.1%가 반영이 잘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4.1%는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신나는 과학교실 프로그램이 제주지역사회 요구 반영 여부에 대해 31.7%가 반영이 잘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5.1%는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학예사와 함께하는 특별전 프로그램이 제주지역사회 요구 반영 여부에 대해 32.7%가 반영이 잘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8.2%는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민속행사(설, 추석) 프로그램이 제주지역사회 요구 반영 여부에 대해 42.9%가 반영이 잘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9.2%는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박물관 탐방교실 프로그램이 제주지역사회 요구 반영 여부에 대해 40.8%가 반영이 잘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3.1%는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해양생물터치풀 프로그램이 제주지역사회 요구 반영 여부에 대해 42.9%가 반영이 잘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5.1%는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찾아가는 이동박물관 프로그램이 제주지역사회 요구 반영 여부에 대해 30.6%가 반영이 잘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6.1%는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갈옷 만들기 프로그램이 제주지역사회 요구 반영 여부에 대해 55.1%가 반영이 잘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4.1%는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학예사와의 만남 강좌 프로그램이 제주지역사회 요구 반영 여부에 대해 37.7%가 반영이 잘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5.1%는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전통문화 강좌 프로그램이 제주지역사회 요구 반영 여부에 대해 53.1%가 반영이 잘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5.1%는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23> 2010년도 교육프로그램의 제주지역사회 요구 반영 여부

(단위: 명, %)

교육프로그램명	① 매우 못함	② 못함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무응답	합계
자연생태교실	-	4 (4.1)	26 (26.5)	42 (42.9)	12 (12.2)	14 (14.3)	98 (100.0)
신나는 과학교실	-	5 (5.1)	43 (43.9)	23 (23.5)	8 (8.2)	19 (19.4)	98 (100.0)
학예사와 함께 하는 특별전	-	8 (8.2)	43 (43.9)	27 (27.6)	5 (5.1)	15 (15.3)	98 (100.0)

민속행사(설, 추석)	-	9 (9.2)	33 (33.7)	29 (29.6)	13 (13.3)	14 (14.3)	98 (100.0)
박물관 탐방교실	-	3 (3.1)	39 (39.8)	30 (30.6)	10 (10.2)	16 (16.3)	98 (100.0)
해양생물터치풀	-	5 (5.1)	35 (35.7)	37 (37.8)	5 (5.1)	16 (16.3)	98 (100.0)
찾아가는 이동박물관	-	6 (6.1)	43 (43.9)	25 (25.5)	5 (5.1)	19 (19.4)	98 (100.0)
갈옷 만들기	-	4 (4.1)	29 (29.6)	41 (41.8)	13 (13.3)	11 (11.2)	98 (100.0)
학예사와의 만남 강좌	-	5 (5.1)	40 (40.8)	25 (25.5)	12 (12.2)	16 (16.3)	98 (100.0)
전통문화 강좌	1 (1.0)	4 (4.1)	28 (28.6)	39 (39.8)	13 (13.3)	13 (13.3)	98 (100.0)

#### ④ 관광객 욕구 수용성

2010년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운영된 프로그램들에 대해 “관광객들의 욕구수요를 잘 반영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의 응답결과는 <표 24>와 같다.

자연생태교실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의 욕구수요 반영 여부에 대해 24.5%가 반영이 잘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0.4%는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신나는 과학교실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의 욕구수요 반영 여부에 대해 17.3%가 반영이 잘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5.5%는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학예사와 함께하는 특별전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의 욕구수요 반영 여부에 대해 27.5%가 반영이 잘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8.4%는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민속행사(설, 추석)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의 욕구수요 반영 여부에 대해 98명 중 40.9%가 반영이 잘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1.2%는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박물관 탐방교실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의 욕구수요 반영 여부에 대해 20.5%가 반영이 잘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8.4%는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해양생물터치풀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의 욕구수요 반영 여부에 대해 35.7%가 반영이 잘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8.2%는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찾아가는 이동박물관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의 욕구수요 반영 여부에 대해 22.5%가 반영이 잘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9.4%는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갈옷 만들기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의 욕구수요 반영 여부에 대해 37.7%가 반영이 잘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3.3%는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학예사와의 만남 강좌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의 욕구수요 반영 여부에 대해 21.4%가 반영이 잘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1.4%는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전통문화 강좌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의 욕구수요 반영 여부에 대해 24.5%가 반영이 잘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4.3%는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24> 2010년도 교육프로그램의 관광객 욕구수요 반영 여부

(단위: 명, %)

교육프로그램명	① 매우 못함	② 못함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무응답	합계
자연생태교실	1 (1.0)	19 (19.4)	38 (38.8)	23 (23.5)	1 (1.0)	16 (16.3)	98 (100.0)
신나는 과학교실	1 (1.0)	24 (24.5)	40 (40.8)	15 (15.3)	2 (2.0)	16 (16.3)	98 (100.0)
학예사와 함께 하는 특별전	-	18 (18.4)	41 (41.8)	21 (21.4)	6 (6.1)	12 (12.2)	98 (100.0)
민속행사(설, 추석)	-	11 (11.2)	33 (33.7)	27 (27.6)	13 (13.3)	14 (14.3)	98 (100.0)
박물관 탐방교실	-	18 (18.4)	44 (44.9)	16 (16.3)	4 (4.1)	16 (16.3)	98 (100.0)
해양생물터치풀	-	8 (8.2)	38 (38.8)	29 (29.6)	6 (6.1)	17 (17.3)	98 (100.0)
찾아가는 이동박물관	-	19 (19.4)	41 (41.8)	19 (19.4)	3 (3.1)	16 (16.3)	98 (100.0)
갈옷 만들기	-	13 (13.3)	34 (34.7)	31 (31.6)	6 (6.1)	14 (14.3)	98 (100.0)
학예사와의 만남 강좌	-	21 (21.4)	43 (43.9)	18 (18.4)	3 (3.1)	13 (13.3)	98 (100.0)
전통문화 강좌	-	14 (14.3)	45 (45.9)	20 (20.4)	4 (4.1)	15 (15.3)	98 (100.0)

### ⑤ 운영기간의 적절성

2010년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운영된 프로그램들에 대해 “운영기간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의 응답결과는 <표 25>와 같다.

자연생태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기간에 따른 적절성 여부에 대해 30.6%가 적절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는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신나는 과학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기간에 따른 적절성 여부에 대해 26.5%가 적절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는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학예사와 함께하는 특별전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기간에 따른 적절성 여부에 대해 27.6%가 적절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5.1%는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민속행사(설, 추석)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기간에 따른 적절성 여부에 대해 34.7%가 적절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4.1%는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박물관 탐방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기간에 따른 적절성 여부에 대해 24.4%가 적절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0.2%는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해양생물터치풀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기간에 따른 적절성 여부에 대해 33.7%가 적절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4.1%는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찾아가는 이동 박물관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기간에 따른 적절성 여부에 대해 22.4%가 적절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2.2%는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갈옷 만들기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기간에 따른 적절성 여부에 대해 36.7%가 적절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7.1%는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학예사와의 만남 강좌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기간에 따른 적절성 여부에 대해 24.5%가 적절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9.2%는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전통문화 강좌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기간에 따른 적절성 여부에 대해 23.5%가 적절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9.2%는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25> 2010년도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기간 적절성 여부

(단위: 명, %)

교육프로그램명	① 매우 못함	② 못함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무응답	합계
자연생태교실	-	1 (1.0)	52 (53.1)	26 (26.5)	4 (4.1)	15 (15.3)	98 (100.0)
신나는 과학교실	-	2 (2.0)	53 (54.1)	24 (24.5)	2 (2.0)	17 (17.3)	98 (100.0)
학예사와 함께 하는 특별전	1 (1.0)	4 (4.1)	53 (54.1)	24 (24.5)	3 (3.1)	13 (13.3)	98 (100.0)
민속행사(설, 추석)	-	4 (4.1)	44 (44.9)	24 (24.5)	10 (10.2)	16 (16.3)	98 (100.0)



박물관 탐방교실	-	10 (10.2)	47 (48.0)	17 (17.3)	7 (7.1)	17 (17.3)	98 (100.0)
해양생물터치풀	-	4 (4.1)	45 (45.9)	28 (28.6)	5 (5.1)	16 (16.3)	98 (100.0)
찾아가는 이동박물관	2 (2.0)	10 (10.2)	46 (46.9)	17 (17.3)	5 (5.1)	18 (18.4)	98 (100.0)
갈옷 만들기	-	7 (7.1)	41 (41.8)	31 (31.6)	5 (5.1)	14 (14.3)	98 (100.0)
학예사와의 만남 강좌	1 (1.0)	8 (8.2)	50 (51.0)	18 (18.4)	6 (6.1)	15 (15.3)	98 (100.0)
전통문화 강좌	-	9 (9.2)	51 (52.0)	19 (19.4)	4 (4.1)	15 (15.3)	98 (100.0)

### ⑥ 제주지역 문화정체성 확립 기여도

2010년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운영된 프로그램들에 대해 “제주지역 문화정체성 확립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의 응답결과는 <표 26>과 같다.

자연생태교실 프로그램이 제주지역 문화정체성 확립 기여 여부에 대해 54.1%가 기여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6.1%는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신나는 과학교실 프로그램이 제주지역 문화정체성 확립 기여 여부에 대해 37.8%가 기여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0.2%는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학예사와 함께하는 특별전 프로그램이 제주지역 문화정체성 확립 기여 여부에 대해 34.7%가 기여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2.2%는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민속행사(설, 추석) 프로그램이 제주지역 문화정체성 확립 기여 여부에 대해 37.8%가 기여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7.4%는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박물관 탐방교실 프로그램이 제주지역 문화정체성 확립 기여 여부에 대해 7.8%가 기여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8.1%는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해양생물터치풀 프로그램이 제주지역 문화정체성 확립 기여 여부에 대해 43.9%가 기여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7.1%는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찾아가는 이동박물관 프로그램이 제주지역 문화정체성 확립 기여 여부에 대해 35.7%가 기여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0.2%는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갈옷 만들기 프로그램이 제주지역 문화정체성 확립 기여 여부에 대해 46.9%가

기여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9.1%는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학예사와의 만남 강좌 프로그램이 제주지역 문화정체성 확립 기여 여부에 대해 41.8%가 기여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1.2%는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전통문화 강좌 프로그램이 제주지역 문화정체성 확립 기여 여부에 대해 50%가 기여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8.1%는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26> 2010년도 교육프로그램의 제주지역 문화정체성 확립 기여 여부

(단위: 명, %)

교육프로그램명	① 매우 기여못함	② 기여못함	③ 보통	④ 기여함	⑤ 매우 기여함	무응답	합계
자연생태교실	1 (1.0)	5 (5.1)	25 (25.5)	47 (48.0)	6 (6.1)	14 (14.3)	98 (100.0)
신나는 과학교실	2 (2.0)	8 (8.2)	37 (37.8)	34 (34.7)	3 (3.1)	14 (14.3)	98 (100.0)
학예사와 함께 하는 특별전	2 (2.0)	10 (10.2)	42 (42.9)	27 (27.6)	7 (7.1)	10 (10.2)	98 (100.0)
민속행사(설, 추석)	3 (3.1)	14 (14.3)	31 (31.6)	24 (24.5)	13 (13.3)	13 (13.3)	98 (100.0)
박물관 탐방교실	1 (1.0)	7 (7.1)	37 (37.8)	32 (32.7)	5 (5.1)	16 (16.3)	98 (100.0)
해양생물터치풀	1 (1.0)	6 (6.1)	34 (34.7)	39 (39.8)	4 (4.1)	14 (14.3)	98 (100.0)
찾아가는 이동박물관	1 (1.0)	9 (9.2)	41 (41.8)	26 (26.5)	9 (9.2)	12 (12.2)	98 (100.0)
갈옷 만들기	2 (2.0)	7 (7.1)	28 (28.6)	31 (31.6)	15 (15.3)	15 (15.3)	98 (100.0)
학예사와의 만남 강좌	1 (1.0)	10 (10.2)	34 (34.7)	34 (34.7)	7 (7.1)	12 (12.2)	98 (100.0)
전통문화 강좌	2 (2.0)	6 (6.1)	27 (27.6)	38 (38.8)	11 (11.2)	14 (14.3)	98 (100.0)

### ⑦ 사회교육 목표 성취도

2010년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운영된 프로그램들에 대해 “수강생의 사회교육 목표성취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의 응답결과는 <표 27>과 같다.

자연생태교실 프로그램이 수강생의 사회교육 목표성취 기여 여부에 대해 47%가 기여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7.1%는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신나는 과학교실 프로그램이 수강생의 사회교육 목표성취 기여 여부에 대해 40.8%

가 기여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8.1%는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학예사와 함께하는 특별전 프로그램이 수강생의 사회교육 목표성취 기여 여부에 대해 36.7%가 기여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13.2%는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민속행사(설, 추석) 프로그램이 수강생의 사회교육 목표성취 기여 여부에 대해 31.6%가 기여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4.21%는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박물관 탐방교실 프로그램이 수강생의 사회교육 목표성취 기여 여부에 대해 35.8%가 기여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1.2%는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해양생물터치풀 프로그램이 수강생의 사회교육 목표성취 기여 여부에 대해 44.9%가 기여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8.1%는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찾아가는 이동박물관 프로그램이 수강생의 사회교육 목표성취 기여 여부에 대해 34.7%가 기여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9.2%는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갈옷 만들기 프로그램이 수강생의 사회교육 목표성취 기여 여부에 대해 39.8%가 기여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7.1%는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학예사와의 만남 강좌 프로그램이 수강생의 사회교육 목표성취 기여 여부에 대해 37.7%가 기여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0.1%는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전통문화 강좌 프로그램이 수강생의 사회교육 목표성취 기여 여부에 대해 47%가 기여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1.2%는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27> 2010년도 교육프로그램의 수강생 사회교육 목표 성취 기여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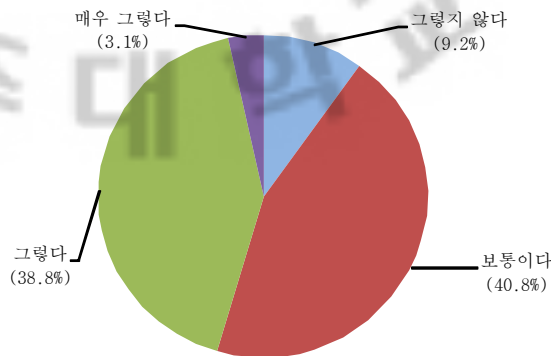
교육프로그램명	① 매우 기여못함	② 기여 못함	③ 보통	④ 기여함	⑤ 매우 기여함	무응답	합계
자연생태교실	2 (2.0)	5 (5.1)	30 (30.6)	42 (42.9)	4 (4.1)	15 (15.3)	98 (100.0)
신나는 과학교실	2 (2.0)	6 (6.1)	34 (34.7)	36 (36.7)	4 (4.1)	16 (16.3)	98 (100.0)
학예사와 함께 하는 특별전	1 (1.0)	12 (12.2)	36 (36.7)	31 (31.6)	5 (5.1)	13 (13.3)	98 (100.0)
민속행사(설, 추석)	2 (2.0)	12 (12.2)	37 (37.8)	25 (25.5)	6 (6.1)	16 (16.3)	98 (100.0)
박물관 탐방교실	1 (1.0)	10 (10.2)	35 (35.7)	32 (32.7)	3 (3.1)	17 (17.3)	98 (100.0)
해양생물터치풀	1 (1.0)	7 (7.1)	30 (30.6)	40 (40.8)	4 (4.1)	16 (16.3)	98 (100.0)

찾아가는 이동박물관	3 (3.1)	6 (6.1)	39 (39.8)	30 (30.6)	4 (4.1)	16 (16.3)	98 (100.0)
갈옷 만들기	4 (4.1)	3 (3.1)	38 (38.8)	32 (32.7)	7 (7.1)	14 (14.3)	98 (100.0)
학예사와의 만남 강좌	3 (3.1)	7 (7.1)	36 (36.7)	31 (31.6)	6 (6.1)	15 (15.3)	98 (100.0)
전통문화 강좌	2 (2.0)	9 (9.2)	27 (27.6)	37 (37.8)	9 (9.2)	14 (14.3)	98 (100.0)

### ⑧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 정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41.9%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9.2%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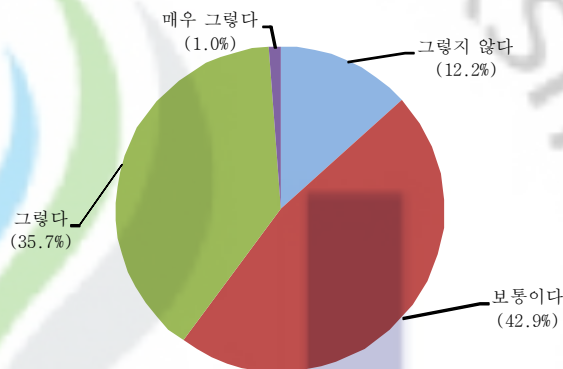
<그림 7>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 여부



### ⑨ 프로그램의 체험 중심 여부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체험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36.7%가 체험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2.2%는 체험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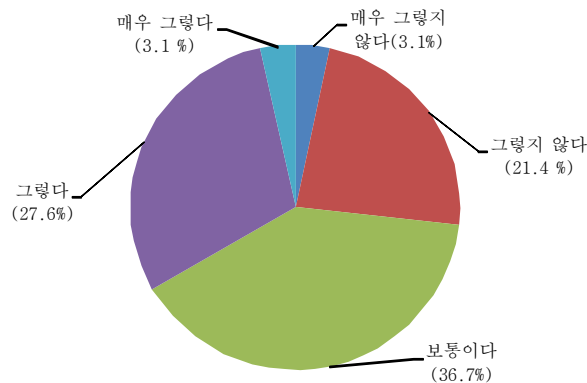
<그림 8> 교육프로그램의 체험 중심 운영 여부



### ⑩ 수준별 차별성 정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수준별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30.7%가 수준별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4.5%는 수준별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9> 교육프로그램의 수준별 차별화된 운영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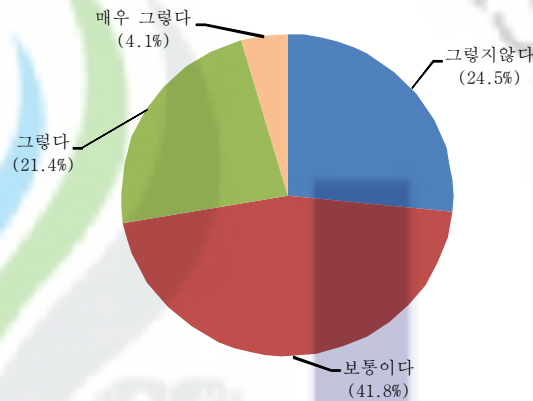


### ⑪ 학교교육과의 연계성

“민속자연사박물관은 학교교육과 관련된 연계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25.6%가 학교교육과 관련된 연계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4.5%는 학교교육과 관련된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10> 교육프로그램의 학교교육 연계성 여부



## 2) 시사점

박물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운영되는 10개의 프로그램 수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박물관의 특성 반영, 지역사회의 요구 부합성, 제주지역 문화정체성 확립 기여도, 사회교육 목표 성취도 등 교육프로그램 평가 기준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은 10개 프로그램 중 자연생태교실, 갈옷만들기, 전통문화강좌, 해양생물터치풀 등 4개에 그쳐, 이외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과 운영적 측면에서의 다각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는 4개의 프로그램들도 관광객 욕구 수용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관광객이 시간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이해된다. 특히 단기적 운영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시간과 기간에 대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그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도외 관람객이 전체 관람객의 98%를 차지하는 박물관<sup>14)</sup>에서 관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 교육과의 연계성에서도 그렇지 못하다는 응답자가 24.5%로 나타났다. 타 박물관이나 교육센터와의 협력적 역할 분담을 통해 차별화된 민속자연사박물관을 상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관련기관과의

14) 2010년 민속자연사박물관 총 유료 관람인원(민속자연사박물관 내부자료) : 630,235명(도외 : 617,433명, 도내 : 12,802명)

교육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동시에 참여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학교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진행 내용에 있어 자연, 민속, 역사 등의 분야별로 프로그램 일정을 체계화하고 운영기간도 늘려 참가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

#### 4.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1) 분석 결과

###### 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중요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운영적 측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데 각 방안들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의 응답결과는 <표 28>과 같다.

전담부서 설치방안에 대해 34.7%가 전담부서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4.5%는 중요도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전문인력 확보방안에 대해 51.1%가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2.3%는 중요도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교육프로그램 중요성 재인식 방안에 대해 47.9%가 교육프로그램 중요성 재인식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4.3%는 중요도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 40.8%가 재정확보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3.4%는 중요도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다양한 교육방법 개발 방안에 대해 50%가 다양한 교육방법 개발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5.3%는 중요도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표 28>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별 중요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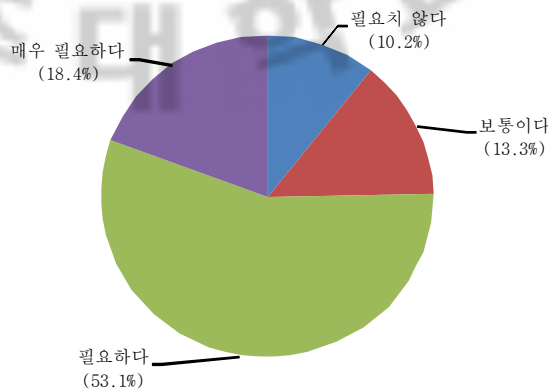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무응답	합계
전담부서 설치	5 (5.1)	19 (19.4)	32 (32.7)	21 (21.4)	13 (13.3)	8 (8.2)	98 (100.0)
전문인력 확보	3	9	28	32	18	8	98

	(3.1)	(9.2)	(28.6)	(32.7)	(18.4)	(8.2)	(100.0)
교육프로그램 중요성 재인식	3 (3.1)	11 (11.2)	29 (29.6)	26 (26.5)	21 (21.4)	8 (8.2)	98 (100.0)
재정확보	6 (6.1)	17 (17.3)	28 (28.6)	20 (20.4)	20 (20.4)	7 (7.1)	98 (100.0)
다양한 교육방법 개발	5 (5.1)	10 (10.2)	26 (26.5)	24 (24.5)	25 (25.5)	8 (8.2)	98 (100.0)

### ② 교육담당 전문인력 필요 여부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연구직 근무자가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의 교육담당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71.5%가 별도의 교육담당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0.2%는 별도의 교육담당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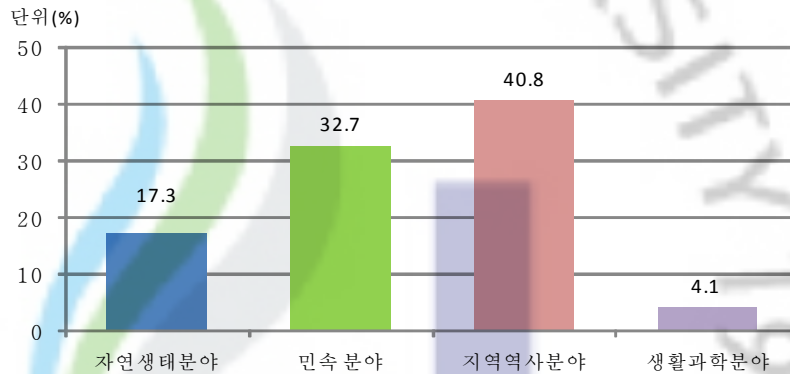
<그림 11>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인력 필요 여부



### ③ 확대해야 할 프로그램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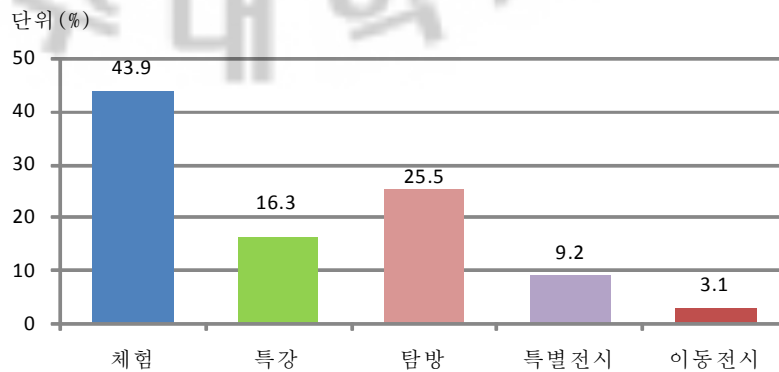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확대해야 할 프로그램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40.8%가 지역 역사분야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민속분야 32.7%, 자연생태분야 17.3%, 생활과학 4.1%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12> 확대해야 할 프로그램 분야



“향후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확대해야 할 프로그램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43.9%가 체험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탐방프로그램 25.5%, 특강프로그램 16.3%, 특별 전시프로그램 9.2%, 이동전시프로그램 3.1%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13> 확대해야 할 프로그램 유형



#### ④ 참여자 확대 방안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참여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41.8%가 참여 계층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언론, 학교, 인터넷 등 홍보매체 적극 활용한 홍보 21.4%,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강사 적극 이용 15.3%, 충분한 예산확보 14.3%, 전용 사회교육 시설 마련 6.1%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29> 교육프로그램의 참여자 확대 방안

구 분	빈도(명)	비율(%)
전용 사회교육 시설 마련	6	6.1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강사 적극 이용	15	15.3
언론, 학교, 인터넷 등 홍보매체 적극 활용한 홍보	21	21.4
참여 계층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41	41.8
충분한 예산 확보	14	14.3
무응답	1	1.0
합계	98	100.0

⑤ 확대해야 할 교육대상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더욱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교육대상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42.9%가 1순위로 어린이라고 응답하였고, 23.5%가 청소년을 18.4%가 성인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30>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교육대상

(단위: 명, %)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어린이	42(42.9)	23(23.5)	19(19.4)
청소년	23(23.5)	43(43.9)	15(15.3)
성인	18(18.4)	15(15.3)	25(25.5)
노인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	9(9.2)	6(6.1)	24(24.5)
전문가층	4(4.1)	3(3.1)	6(6.1)
무응답	2(2.0)	8(8.2)	9(9.2)
합계	98(100.0)	98(100.0)	98(100.0)

“민속자연사박물관 확대교육 대상 1순위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7명 중 교육의 효과가 가장 두드러질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  
에와 어린이부터 제주의 민속자연을 알아야 함으로가 각각 19.1%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문화자원의 소중함을 통해 제주정체성 확립 12.8%, 미래  
를 이끌어갈 주역이기 때문에 10.6%, 성인들이 관심을 갖고 어린 자녀 및 청소년  
들에게 전파하여야 하기 때문에 6.4%, 전문가층에 대한 전문적 특강이 많아야 하



기 때문에 6.4%, 도립박물관이기 때문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6.4%, 청소년들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낮기 때문에 4.3%, 경험하지 못해본 세대들이 제주를 배워가기 위해서 4.3%,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부재로 인하여 4.3%, 잊혀져가는 민속에 대해 후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2.1%,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교육 부재로 인하여 2.1%,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욕구충족을 위하여 2.1% 순으로 응답하였다.

### ⑥ 연계 협력 필요 기관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계·협력이 필요한 기관은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1순위로 38.8%가 교육기관(초·중·고교)이라고 응답하였고, 국·공립박물관 24.5%, 지역커뮤니티 16.3%, 지역소재 대학 11.2%, 사립박물관 5.1%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31>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연계·협력이 필요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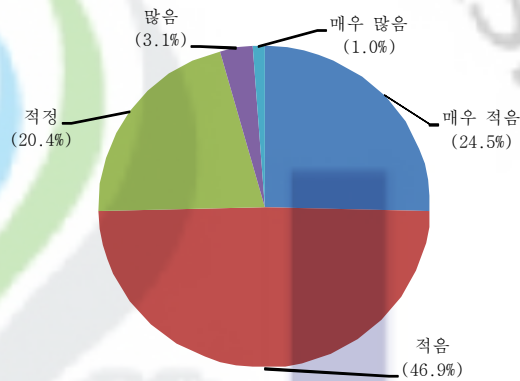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교육기관(초,중,고)	38(38.8)	18(18.4)	15(15.3)
국공립박물관	24(24.5)	19(19.4)	21(21.4)
지역커뮤니티	16(16.3)	15(15.3)	24(24.5)
지역소재 대학	11(11.2)	25(25.5)	11(11.2)
사립박물관	5(5.1)	13(13.3)	17(17.3)
무응답	4(4.1)	8(8.2)	10(10.2)
합계	98(100.0)	98(100.0)	98(100.0)

### ⑦ 적정 예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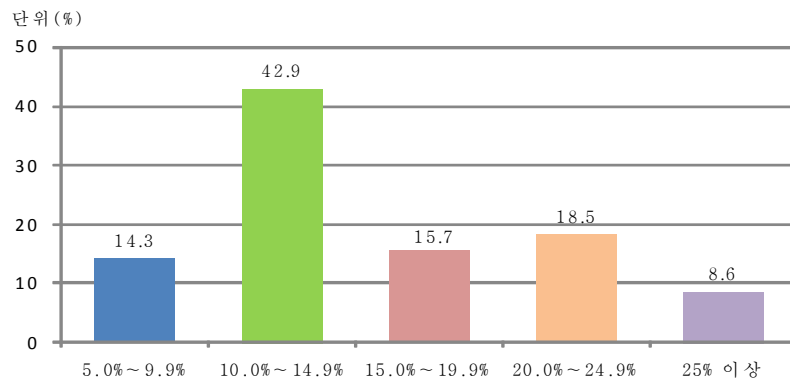
“2010년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총예산은 약 8억원이고, 이 중 약 3천5백여만원(4.5%)이 교육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71.4%가 교육프로그램 예산이 적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4.1%는 교육프로그램 예산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14> 교육프로그램의 예산 적정성 여부



민속자연사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예산이 적다고 응답한 응답자 70명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예산을 총예산의 몇 %로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42.9%가 10.0%~14.9% 증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20.0%~24.9% 증액이 필요하다 18.5%, 15.0%~19.9% 증액이 필요하다 15.7%, 5.0%~9.9% 증액이 필요하다 14.3%, 25% 이상 증액이 필요하다 8.6%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15> 교육프로그램의 예산 총예산 대비 증액 정도



### ⑧ 홍보 강화 매체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홍보활동 강화 매체 1순위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50%가 TV 방송이라고 응답하였고, 20.4%가 신문 등 일간지를 15.3%가 홈페이지라고 응답하였다.

<표 32> 교육프로그램 홍보 강화 매체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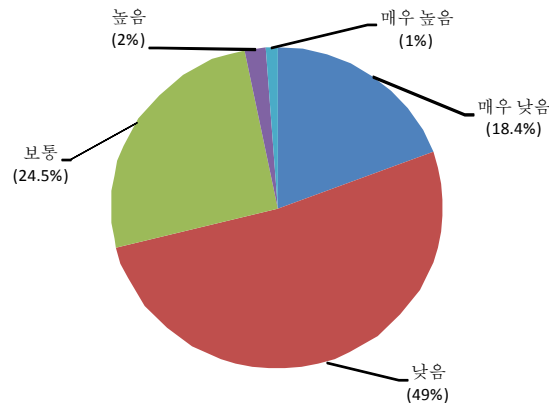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TV 방송	49(50.0)	16(16.3)	16(16.3)
신문 등 일간지	20(20.4)	41(4.8)	13(13.3)
홈페이지	15(15.3)	13(13.3)	32(32.7)
근무자의 홍보	6(6.1)	6(6.1)	10(10.2)
홍보팸플렛	4(4.1)	12(12.2)	17(17.3)
무응답	4(4.1)	10(10.2)	10(10.2)
합계	98(100.0)	98(100.0)	98(100.0)

### ⑨ 선거직 공무원의 인식

“선거직 공무원(도지사와 도의회 의원)이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에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67.4%가 선거직 공무원은 교육프로그램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3%는 선거직 공무원은 교육프로그램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16> 선거직 공무원의 민속자연사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중요성 인식 여부



### 2) 시사점

응답자들은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문인력 확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 재인식, 충분한 재정 확보, 전담부서 설치 순으로 그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조사 결과의 특징은 여타 연구에서 박물관 활성화 방안 중 중요하게 제시되는 충분한 재정 확보가 전문인력 확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프로그램 중요성 재인식 보다 낮게 응답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결과가 도출된 배경으로, 첫째, 제주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여타 지역과는 유별난 차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이 전문적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수 10개가 적정하다고 하지만 3년 동안 프로그램 내용에 변경이 없었다는 점은 제주지역의 문화다양성을 감안할 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고 이는 교육전문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결과로 본 것 같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교육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는 인식이 응답자들에게 있는 것 같다.

또한 체험 중심과 지역역사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이제 참여자들은 단순 일방적 강의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본인들이 체험하는 교육 활동에 관심이 높다. 따라서 체험 중심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 지역의 개방화 정책은 자칫 지역의 정체성 상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장치로서 우선 자신의 지역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공립박물관인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지역역사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을 선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체험 중심의 지역 역사 분야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 정체성 확립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확대해야 할 참여자의 1순위로 응답된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지역 내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박물관이 설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물관의 신나는 과학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도 양호하여 프로그램의 내용과 참여대상자를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을 방안이라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는 지역의 미래 주체이기 때문에 조기적 접근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의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이 각 과별 연구분야 담당자에 의해 기획·운영됨으로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단기간 1회성인 것이 많고,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한 대중매체와 첨단 기술이 사용되기도 한다. 교육전문가는 박물관의 자료와 정보, 장소를 활용해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교육전문가에 대한 중요성은 박물관

관 교육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이끌어가야 할 중심이 교육전문가에 있음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교육전문 인력에 의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은 앞으로 박물관이 지역 주민들에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음으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의 한계이다. 총예산 중 4.5%가 교육프로그램에 운영되고 있는데 응답자의 71.4%가 운영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하였고 42.9%가 박물관 전체 예산의 10.0%~14.9%로의 예산 증액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 중요성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예산 확보와 홍보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 제5장 맺음말

오늘날의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수집,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하는 기본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역할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교육적 기능 강화이다. 즉,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는 지역정체성을 고취시키고 관광객들에게는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관광 수입 증대라는 다중효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특히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문화적 특이성을 가지고 있고 국제자유도시 추진이라는 세계를 향한 개방성을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정체성 확보는 중요한 지역의 핵심과제일 수밖에 없고 공립박물관은 그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이런 문제 인식 아래, 본 연구는 민속자연사박물관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단순한 이론적 접근을 통한 방안 제시의 한계를 벗어나 타박물관 학예사 등 관련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활성화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2010년 현재 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총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교육프로그램들은 제주지역사회의 요구, 민속자연사박물관의 특성, 관광객들의 욕구 수요 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지역 문화정체성 확립 기여, 수강생 사회교육 목표 성취에도 일정한 성과를 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설문에 응한 대상자들은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속자연사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이 여러 측면에서 제시되고 있다. 첫째, 홍보의 부족이다. 응답자 중 상당 수(57%)는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주변사람으로부터 혹은 민속자연사박물관 근무자로부터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홍보 효과가 미미하여 광범위한 도민의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시간의 비탄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대부분은(41.8%) 프로그램이 개설된 것을 몰랐다고 응답해 홍보 부족을 지적하고 있으며, 34.5%가 운영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

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셋째, 교육 관련 전문 인력의 부재이다. 현재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연구직 근무자가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교육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전문 인력의 확보는 박물관이 교육적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다. 전문 인력의 확보는 교육프로그램의 질과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문 인력에 의해 교육프로그램이 체계화되고 다양하게 운영된다면 참여자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프로그램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넷째, 매년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5년 전에 개발·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다. 매년 제한된 프로그램으로 반복적 운영이 이루어지다보니 참신성과 차별성이 없어 참여자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는 박물관 내에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며, 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극적 운영의 한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예산의 한계이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은 박물관 총 예산의 4.5%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71.4%)은 예산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응답자들은 전문 인력 확보, 다양한 교육 방법 개발, 교육프로그램 중요성 인식, 충분한 재정 확보, 전담부서 설치 순으로 그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민속자연사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체험 중심과 지역역사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단순한 강좌접근만으로는 참여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또한 개방화 시대의 지역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역사분야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관람객의 대부분이 도외 관광객인 박물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는 박물관의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프로그램 참여대상의 확대이다. 현재 박물관에서는 어린이, 도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타 박물관의 사례를 보자면 유치원생, 청소년, 교사를 포함해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박물관은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참여계층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지역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참여대상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언론, 학교, 인터넷 등의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외부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필요하다. 특히 한정된 예산 운용을 극대화 함에 있어 지역 교육기관(초·중·고교), 국·공립박물관, 지역커뮤니티와의 협력으로 발전된 교육효과를 창출하고 더불어 이들의 활발한 협력과 교류는 역동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제주사회 통합에도 일조 할 것이다.

넷째, 전문인력 및 충분한 예산 확보가 요구된다. 현재의 예산으로는 지역정체성 확보 및 관광수입 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응답자들은 최소한 현재의 예산을 민속자연사박물관 총예산의 10~15%로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 운영과 프로그램의 양·질적 운영을 가능케 한다. 전문 인력의 확보는 교육프로그램의 질과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육전문 인력에 의해 교육프로그램이 체계화되고 다양하게 운영된다면 일반시민들에게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박물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적극적인 홍보활동 강화이다. 특히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TV 방송을 통한 광고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신문 등 일간지 광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교육프로그램 중요성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지역의 예산배분은 선거직 공무원들에 의해 좌우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느냐는 예산 배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응답자의 50% 이상이 선거직 공무원들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속자연사박물관 근무자들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즉, 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개선의지를 가지고 적극적 홍보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관장을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서 임명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근래 들어 박물관과 미술관에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기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 관장을 임명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는 공립박물관의 경우 더욱 더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공모자로부터 박물관 발전 방향 및 사업 추진 계획 제안서를 받고, 철저한 심사와 함께 1년 단위로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재임용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는 것이다.<sup>15)</sup> 개방형 공모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경기도박물관과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경우에도 이미 실행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살린 학예 중심의 박물관 운영은 과거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정 중심의 운영에서 탈피하여 민속자연사박물관이 본연의 설립 목적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1세기는 지방의 시대이며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하지만 단순한 구호만으로는 이를 실천할 수 없고 지역의 문화경쟁력 확보도 요원하다.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한 실질적 행동이 수반될 때 제주문화의 정체성이 지역주민에게 체득될 것이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이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때, 지역주민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박물관 천국, 제주’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된다.

15) 김동진, 「제주의 전통문화와 박물관」, 『제주 전통문화의 보존과 발전방안』 18·19집 합본호, 제주국제협의회, 2008, 85쪽.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강인애, 『박물관 교육의 다양성』, 서울, 문음사, 2010.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보』 제13호, 2005.
-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 2001.
- 국성하, 『우리 박물관의 역사와 교육』, 서울, 혜안, 2009.
- 김영관외 편, 『박물관 자료의 수집과 관리: 박물관 이론』, 서울, 서경문화사, 2001.
- 김종대, 『박물관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문음사, 2009.
- 김지화·정지웅, 『사회교육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1997.
- 박물관 교육철학회 편, 『박물관과 교육』, 서울, 문음사, 2001.
- 백 령, 『멀티미디어시대의 박물관 교육』, 서울, 문음사, 2001.
- 문화관광부, 『박물관·미술관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방안 연구』, 2006.
- (사)박물관협의회, 『박물관협의회 결과보고서』, 2010.
- 세계박물관협회 편, 하태환 역, 『박물관과 미술관의 새로운 경영』, 서울, 궁리, 2000.
- 이난영, 『박물관학입문』, 서울, 삼화출판사, 2001.
- 이보아, 『박물관학 개론』, 서울, 김영사, 2000.
- 이보아, 『성공한 박물관 성공한 마케팅』, 서울, 역사넷, 2003.
- 이영진, 석대권, 구자봉 편, 『박물관전시의 이해』, 서울, 학문사, 2000.
- 이현구, 『박물관에서 꺼내온 철학이야기』, 서울, 우리교육, 2003.
- 전경수, 『한국박물관의 어제와 내일』, 서울, 일지사, 2005.
- 전진성, 『박물관의 탄생』, 서울, 살림, 2004.
- 최병식, 『박물관 경영과 전략』, 서울, 동문선, 2010.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중장기 발전방안』, 2000.
- \_\_\_\_\_, 『국립중앙박물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2001.



## 2. 논 문

- 국성하,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 연구」, 『교육사학연구』 제13집, 서울대학교 교육사학과, 2003.
- 길병원, 「초등사회과 역사 영역의 교육박물관 학습방안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동전, 「제주의 전통문화와 박물관」, 『제주 전통문화의 보존과 발전방안』 18·19집 합본호, 제주국제협의회, 2008.
- 김명화,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현황 분석과 개발에 관한 연구: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미겸, 「박물관 교육을 통한 초등학생 역사학습의 현황과 방안」,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수윤, 「사립박물관 교육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의진, 「지역박물관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충북지역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혜정, 「웹 기반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국립민속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나선화, 「중등학교·대학교의 박물관의 교육적 활용」, 『문화개방과 문화교육』, 한국교육학회 교육철학연구회, 1998.
- 류병희, 「문화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문화시설의 초등학교 어린이 문화프로그램 제안 및 활성화 방안」,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박경애, 「박물관 교육 전문가의 역할과 중요성에 관한 연구: 국립전주박물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서명애, 「박물관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손기연, 「박물관 유형에 따른 복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과 제안」,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양지연, 「박물관 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예술경영연구』 제2집, 한국예술경영학회, 2002.

- 양현미, 「박물관 연구와 박물관 정책-문화 연구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박물관 연구와 정책」,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 오상현, 「서울역사박물관의 초등교육 연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분석과 평가-2001년 초등학생 4, 5, 6학년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윤혜영, 「자연과학계 박물관 전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미지, 「박물관·미술관 감상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접근방법 연구-초등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이민경, 「문화관광지 방문동기와 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보아, 「21세기 박물관 경영의 현황과 과제」, 『예술경영 연구』 제1집, 한국예술경영학회, 2001.
- 이은미, 「한국박물관의 교육적 가능성의 탐색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이종선, 「경기도지역 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의 발전방안』, (사)경기도박물관협의회, 2004.
- 이종철, 「박물관에도 이제 ‘경영’논리를 적용할 때가 왔다.-박물관 이용자의 요구(NEEDS)에 주목하라-」, 『한국박물관경영마케팅학』(제1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한국박물관경영마케팅학회, 2004.
- 전태일, 「박물관 활성화 전략으로서의 교류활동」, 『도시역사문화』 2호, 서울역사박물관, 2004.
- 전혜정, 「박물관 유형에 따른 우리나라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실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정영임, 「제주지역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과 활성화 방안」,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조한희, 「박물관의 정상화 경영에 대한 제언: 박물관 활성화 전략-사립박물관을 중심으로-」, 『경기도박물관(미술관)의 발전 방안』, (사)경기도박물관협의회, 2002.

조행임,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분석과 교육전문가(에듀케이터:educator) 양성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최종호,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박물관 마케팅 전략」, 『박물관 경영·마케팅 학회 제6회 학술대회』, 한국박물관경영·마케팅학회, 2006.

최종호, 「영월 박물관 고을 조성과 지역공동체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박물관 학보』, 한국박물관학회, 2005.

한지윤,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국립제주박물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Abstract>

**A Study on the Activation Method of Social Education  
Programs of Museum  
- Focusing on Folklore and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Eun-Sil Kang

Major in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In-hyuk Kwon

These days, a museum promotes its mission not only to collect, preserve, research, and display relics, but also to actively change its vital role.

Jeju has unique culture due to its natural characteristic of island and also pursues openness to the world with promotion of "Free International city".

Therefore, the securing of cultural identity becomes the core task and public museum should perform its central role.

This study aims to analyze educational programs and provides proper suggestions focusing on Folklore and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intended for experts like curators.

The results of this survey present several problems such as insufficient publicity, inflexible program operation hours, insufficient experts related with educational programs, annually identical educational programs, and limited

budget.

Suggestions to fix up thes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experience-oriented and local history-related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Second, the opportunity of local experience should be provided trying to suit different groups. Third, Synergy effect should be produced through coope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Fourth, sufficient experts and budgets should be guaranteed. Fifth, active promotions should be facilitated.

Last, decision makers' perception on the educational programs of museum should be renewed.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staffs' perception on the educational programs. They have to renew their sense on the importance of educational programs.

Issues with active publicity and budget should be solved with willing to improve program operation.

It might be a good idea to nominate a director of museum through open type bidding system, which can be devoted to the original establishment purpose and role.

It is also helpful to vitalize educational programs of museum.

It is said that the 21 century is the age of local areas and cultures.

Because just a slogan doesn't make it come true, however, Jeju has to devote its efforts to strengthening cultural competitiveness.

It has to full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ducational programs for local cultural development. Finally, the identity of Jeju culture can be learned and experienced with these programs.

When educational programs are vitalized, Jeju Folklore and Natural History Museum might be reborn as a representative of "Jeju, paradise of museums" that meets the demands of culture and establishment of identity for local residents.



##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모색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역사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입니다.

금번 저는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석사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완성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본 설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읽고 느끼시는 대로 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8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학문적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소 불편하고 번거로우시더라도 솔직하고 성의 있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4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지도교수 : 권 인 혁 교수

연구자 : 강 은 실 드림

아래 표는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운영된 교육프로그램 현황입니다.

교육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운영대상	수료인원(명)
자연생태교실	월 1회	부모, 어린이	281
신나는 과학교실	"	"	249
학예사와 함께 하는 특별전	연중	관람객	-
민속행사(설, 추석)	설연휴, 추석연휴	관람객	-
박물관 탐방교실	7.28~7.29	초등, 청소년	81
해양생물터치풀	8.21~8.27	관람객	-
찾아가는 이동박물관	8.10~8.13	추주주민, 관광객	-
갈옷 만들기	8.06~8.08	도민, 초등	90
학예사와의 만남 강좌	9.16~9.17	도민	53
전통문화 강좌	11.10~11.13	도민	194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항목에 ✓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교육프로그램 인식도

1-1. 선생님께서는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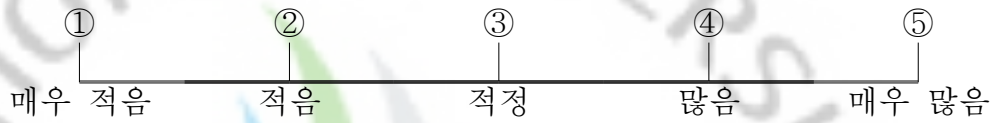
교육프로그램명	① 잘 모름	② 모름	③ 보통	④ 알고 있음	⑤ 잘 알고있음
자연생태교실					
신나는 과학교실					
학예사와 함께 하는 특별전					
민속행사(설, 추석)					
박물관 탐방교실					
해양생물터치풀					
찾아가는 이동박물관					
갈옷 만들기					
학예사와의 만남 강좌					
전통문화 강좌					

☞ 아래의 1-1-1 문항은 앞의 1-1 문항에서 알고 있음에 답한 분만(④,⑤) 답해주십시오 !

1-1-1. 선생님께서는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교육프로그램이 개설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

- ① 민속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 ② 언론매체 광고 ③ 주변사람으로부터 ④ 민속자연사박물관 근무자  
⑤ 기타( )

1-2. 선생님께서는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홍보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 선생님께서는 2010년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운영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프로그램명	① 0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이상
자연생태교실					
신나는 과학교실					
학예사와 함께 하는 특별전					
민속행사(설, 추석)					
박물관 탐방교실					
해양생물터치풀					
찾아가는 이동박물관					
갈옷 만들기					
학예사와의 만남 강좌					
전통문화 강좌					

☞ 아래의 1-3-1 문항은 앞의 1-3 문항에서 교육프로그램에 1회 이상 참여한 분(②,③,④,⑤)만 답해주십시오!

1-3-1. 선생님의 교육프로그램 참여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프로그램명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자연생태교실					
신나는 과학교실					
학예사와 함께 하는 특별전					
민속행사(설, 추석)					
박물관 탐방교실					
해양생물터치풀					
찾아가는 이동박물관					
갈옷 만들기					
학예사와의 만남 강좌					
전통문화 강좌					

☞ 아래의 1-3-2 문항은 앞의 1-3 문항에서 9개의 어떤 교육프로그램에도 참여한 적이 없는 분만(①) 답해주십시오 !

1-3-2. 선생님께서는 왜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 ① 프로그램이 개설된 것을 몰랐다
- ②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심이 없다
- ③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이 맞지 않았다
- ④ 다른 기관에서도 수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기타 ( )

## 2. 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

2-1. 2010년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10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 수가 적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2. 2010년도 운영된 교육프로그램들이 민속자연사박물관의 특성을 잘 반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프로그램명	① 매우 못함	② 못함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자연생태교실					
신나는 과학교실					
학예사와 함께 하는 특별전					
민속행사(설, 추석)					
박물관 탐방교실					
해양생물터치풀					
찾아가는 이동박물관					
갈옷 만들기					
학예사와의 만남 강좌					
전통문화 강좌					

2-3. 2010년도 운영된 교육프로그램들이 제주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프로그램명	① 매우 못함	② 못함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자연생태교실					
신나는 과학교실					
학예사와 함께 하는 특별전					
민속행사(설, 추석)					
박물관 탐방교실					
해양생물터치풀					
찾아가는 이동박물관					
갈옷 만들기					
학예사와의 만남 강좌					
전통문화 강좌					

2-4. 2010년도 운영된 교육프로그램들이 관광객들의 욕구수요를 반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프로그램명	① 매우 못함	② 못함	③ 보통	④ 좋음	⑤ 매우 좋음
자연생태교실					
신나는 과학교실					
학예사와 함께 하는 특별전					
민속행사(설, 추석)					
박물관 탐방교실					
해양생물터치풀					
찾아가는 이동박물관					
갈옷 만들기					
학예사와의 만남 강좌					
전통문화 강좌					

2-5. 2010년도 운영된 교육프로그램들의 운영기간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프로그램명	① 매우 못함	② 못함	③ 보통	④ 좋음	⑤ 매우 좋음
자연생태교실					
신나는 과학교실					
학예사와 함께 하는 특별전					
민속행사(설, 추석)					
박물관 탐방교실					
해양생물터치풀					
찾아가는 이동박물관					
갈옷 만들기					
학예사와의 만남 강좌					
전통문화 강좌					

2-6. 2010년도 운영된 교육프로그램들이 제주지역 문화정체성 확립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명	① 매우 기여못함	② 기여 못함	③ 보통	④ 기여함	⑤ 매우 기여함
환경생태교실					
신나는 과학교실					
학예사와 함께 하는 특별전					
민속행사(설, 추석)					
박물관 탐방교실					
해양생물터치풀					
찾아가는 이동박물관					
갈옷 만들기					
학예사와의 만남 강좌					
전통문화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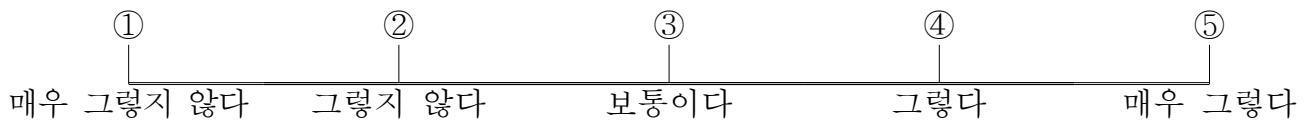
2-7. 2010년도 운영된 교육프로그램들이 수강생의 사회교육 목표 성취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명	① 매우 기여못함	② 기여 못함	③ 보통	④ 기여함	⑤ 매우 기여함
자연생태교실					
신나는 과학교실					
학예사와 함께 하는 특별전					
민속행사(설, 추석)					
박물관 탐방교실					
해양생물터치풀					
찾아가는 이동박물관					
갈옷 만들기					
학예사와의 만남 강좌					
전통문화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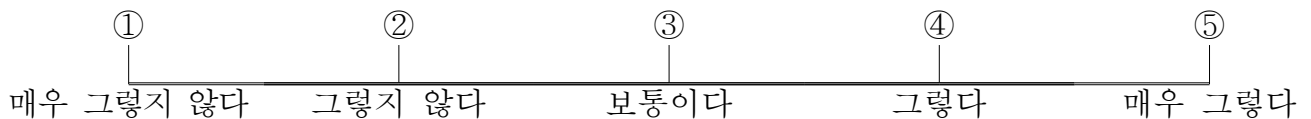
2-8.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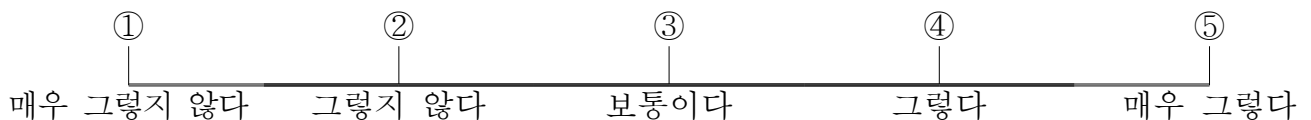
2-9.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체험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10.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수준별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11. 민속자연사박물관은 학교교육과 관련된 연계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7.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계·협력이 필요한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① 교육기관(초·중·고) ② 지역소재 대학 ③ 국·공립박물관 ④ 사립박물관 ⑤ 지역커뮤니티

3-8. 2010년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총예산은 약8억원이고 이중 약3천5백여만원(4.5%)이 교육프로그램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래의 3-8-1 문항은 앞의 3-8 문항에서 적다고 답한 분만(①,②)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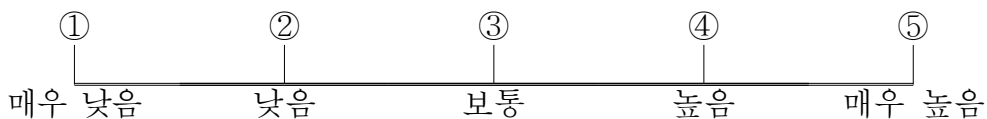
3-8-1. 교육프로그램예산을 민속자연사박물관 총예산의 몇 %로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5.0%~9.9% ② 10.0~14.9% ③ 15.0~19.9% ④ 20.0~24.9% ⑤ 25%이상

3-9.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매체의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지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① 홈페이지 ② 신문 등 일간지 ③ TV 방송 ④ 홍보팸플렛 ⑤ 근무자의 홍보  
⑥ 기 타( )

3-10. 선거직 공무원(도지사과 도의회 의원)이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11.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인구통계를 위한 질문입니다

(본 문항은 통계분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1. 성별

- ① 여성                  ② 남성

2. 연령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근무지 및 담당업무

(근무지:                  . 담당업무:                  )

4. 근무기간

- ① 1년 미만    ② 1년-5년    ③ 5년-10년    ④ 10년 이상    ⑤ 기타(                  )

— 수 고 하 셧 습 니 다 —

\* 선생님의 정성어린 응답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